朝鮮日報
夕刊
二十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獨逸問責決議案 全會一致로採擇

립벤트로프獨代表反對도虛事

十九日聯盟理事會

립벤트로프獨代表

【倫敦十九日發電通】 十九日의 聯盟理事會는 午前의 會議에 繼續하야 다시 午後三時五分부터 非公開會議로써 續開하야 約二十數分間協議한後 午後三時三十分부터 公開會議로써 開會하고 即時 佛白共同의 獨逸問責決議案 表決에 들어가 同案은 드듸어 全會一致(에콰도르는欠席、智利는 棄權)의 形式으로 採擇되엿다 그리고 右表決에 際하여 獨逸代表립벤트로프氏는 低聲이나마 굿세게 反對를 表示하엿스나 이는 勿論 票數에 加하지안헛다 이리하야 理事會는 午後四時三分 散會하엿다

【倫敦十九日發同盟】 對獨問責決議案正文은 如左하다

聯盟理事會는 三月八日佛白兩國代表가 提出한 要請에 基하야 第一로 獨逸政府가 베르사이유條約第四十二條 第四十三條와 라인保障條約의 公約을 無視하고 라인非武裝地帶에 正規軍을 派遣占據케하야 베르사이유條約第四十二條 第四十三條와 라인保障條約을 侵犯한것을 確認함

第二로 聯盟事務總長에게 右事實의 認定을 로카르노體制參加各國에 通達할것을 命함

最後로 부루ー스議長은 「二十日 非公開會議를 開催하고 理事會今後의 議事日程을 決定하겟다」는 旨를 述하고 午後四時三分(日本時間午前一時三分)散會를 告하엿다

라인獨領廿키로幅 非武裝地帶設定

同地帶는國際軍隊로警備

로條約國、獨逸에通告

【倫敦十九日發電通】 이든英外相은 十九日午後四時부터 時餘에 亘하야 開催된 英下院首相室에서의 閣議에서 로카르노條約國會議調整案에 關하야 承認을엇고 또 佛白伊三國政府로부터도 이와前後하야 右에 關한同意通告를바덧슴으로 同日午後六時 리벤트롭獨逸代表에게 對하야 如左히 通告하엿다

라인란드 駐兵問題를解決하기爲하야 英佛白伊四國政府는

一、佛蘇條約이 로카르노條約에 抵觸되는與否를 國際司法裁判所의 判定에 맛겨右判決에따라 行動할것

二、國境線으로부터 幅員二十키로米突의 獨逸領라인란드를非武裝地帶로되게하야 國際軍隊로써 이를警備에 當케할것

이란條項을 獨逸政府에 要請하기로 十九日意見이 一致되엿다

로카르노小委員會 콤뮤니케發表

【倫敦十九日發同盟】 로카르노小委員會終了後 左의 콤뮤니케가 發表되엿다

英佛白伊各國代表는 四個國間의 協定達成을 爲하야 크게 努力되엿는데 이제 討議는 多分히 滿足할 進捗을보아 이미 四個國代表는 互相協力하야 正文을 作成하엿는바 右正文은 專門委員에게 附託起草되고잇는中이므로 곳 各國政府에 提出될것이다 但 各國政府의右 正文에 對한 判斷에 關해서는 完全한 自由를 保持한다

佛蘭西閣議 議定事項을可決

【巴里十九日發電通】 佛國閣議는 十九日夕刻 로카르노條約國會議의 議定事項을 一擧에 可決하고 即時 倫敦代表部에 同意의 訓令을 發한後 다시 二時間四十五分에 亘한 大評定會를 開하야 로카르노條約國會議로부터 來週理事會에 提出될 決議案內容細目及 歐洲國際會議에 臨할 方針等을 協議하엿다

그리고 플랑당外相은 午後七時 飛行機로 巴里에 歸着하야 會議事情을 報告하엿다

英、四國을代表해 對獨交涉에開始

【倫敦十九日發電通】 英國政府當局은 로카르노條約國會議의 對獨提案에 基하야 獨逸과의 交涉은 英國이 英佛伊白四國全部를 代表하야 行하기로 決定하고 적어도 交涉의 最初期間은 單獨交涉의形式으로 進行하기로 되엿다는 旨를 十九日 言明하엿다 그리고 正式交涉은 國際地方裁判所의 決定을 기다려 開始하기로 되어잇다는 旨를 附言하엿다

議會召集詔書公布

【東京電話同盟】 第六十九特別議會召集과 會期에 關한 詔書는 二十日 官報本紙로써 如左히 公布되엿다

詔書

朕 帝國憲法第七條及 第四十五條에 依하야 今年五月一日로써 帝國議會를 東京에 召集함

御名御璽

昭和十一年三月十九日

各國務大臣副署

詔書

朕 今年五月一日로써 召集하는 帝國議會는 廿一日로써會期로 할것을 命함

御名御璽

昭和十一年三月十九日

各國務大臣副署

皇族會議에서御決定 兩殿下臣籍御降下

【東京電話同盟】 畏者 樞密院本會議에 御諮詢하신 伏見宮博英王 朝香宮正彦王兩殿下 臣籍御降下의 御請願件은 皇室典範所定에 依하야 二十日午前十時半부터 天皇陛下御統理下에 宮中西溜室에서 御開催하신 皇族會議에 御上程하야 玆에 兩殿下의 臣籍御降下는 正式 決定되엿다 四月初 兩殿下는海軍少尉 御任官과함께 宮中에서 各其 御家名을 下賜하사 華族에 列하옵실 터이라고 承聞되다

新로카르노 體制協定內容

【倫敦十九日發同盟】 獨逸政府의 로카르노體制破棄宣言以來 十數日 英米佛伊四國間에 展開된 十數次折衝의 結果 新로카르노體制의 基礎를 確立하기로되엿다 新協定附屬書全文은 十二頁에 達한다는데 所謂「作戰協定」에 依하야 英國政府가 佛白兩國에 對하야 事實上 軍事的 援助를 公約하고잇는데 對하야 佛國代表의 라인非武裝地帶現狀回復要求를 援和하도록 만드는것이 新協定의 目標라고 解釋된다 新協定案의 內容이라고 信憑되는 바를 要約하면 如左하다

獨逸의 一方的行動에 對하야 善後策으로 聯盟理事會에 左의 決議案을 提出한다

一、獨逸政府의 一方的行動을 非難하고 國際條約神聖을 再確認하는 決議案

一、佛蘇兩國相互援助條約이 로카르노體制와 서로 背馳되는 與否를 常設國際司法裁判所에 附託하야 裁斷을 仰請할것을 獨逸政府에 要請하는 決議案

◀暫定非武裝地帶案

一、獨逸政府가 常設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을 尊重하겟다는 旨를 公約할 境遇에 相互援助條約을 同法廷에 附託하야 判決이 내리기까지 獨逸政府는 自國軍을 라인國境線을떠난 東方二十키로의 地點까지 撤收할것

一、國境線으로부터 東方二十키로의 地域을 非武裝地帶로하야 獨逸政府는 右地帶內에 要塞를 構築치안흘것

但 獨逸政府는 舊라인非武裝地帶로부터 進駐部隊를 撤收함을 要하지안코 또 新非武裝地帶에 國際警備軍을 配置치안흠

◀國際會議案

一、獨逸政府가 以上의 各項을 受諾할境遇에 英佛白伊四國政府는 獨逸政府를 參加시켜 國際聯盟機構內에서 新國際平和會議를 開催하야 히틀러總統의 新平和機構案을 檢討할것

一、新國際平和會議의 議題는 히틀러總統의 新로카르노體制案 따놀로카르노案、軍縮問題等에 經濟問題等을 包含할것

◀作戰協定案

一、獨逸軍이 佛、白兩國領土를 攻擊할 境遇에 英國政府는 自國軍으로서 佛白國軍을 援助할것

一、以上의 目的을 達成하기爲하야 英佛白三國軍參謀本部間에 協議를 遂하야 所謂「作戰協定」에 依하야 緊密提携를 圖할것

◀諒解條項

一、獨逸政府가 今回의 提案을 拒否할 境遇에도 有効로할것

一、佛國政府는 國際情勢의 現狀에 徵하야 라인非武裝地帶 現狀回復에 關한 要求를 一時 撤回하고 常設國際司法裁判所가 佛蘇兩國間의 相互援助條約에 關하야 로카르노體制에 背馳되지안는다는 旨의判決를 내릴 境遇에는 獨逸政府는 進駐部隊를 撤收하고非武裝地帶를 現狀에 回復할것이라고 期待된다

一、獨逸政府가 常設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受諾을 拒否할境遇에는 聯盟理事會는 右事實을 記錄에 남기고 英佛白伊四國政府는 獨逸政府壓迫의手段과 新安全保障機構에 關하야 協議를 遂할것

英佛白伊四國代表는 右協定案을 各各 本國政府에 提示하고 承認을 求한다음 正式調印할터인데 英蘇兩國政府가 承認을 與하기까지는 假調印에 끄칠것으로 보인다

新國際會議에 資源分配論上程?

獨失地要求의導火線化?

【倫敦十九日發電通】 로카르노條約國會議에서 決定된 聯盟主催의 歐洲國際會議에 招請바든境遇 그經濟關係의 議題로 提出될것은

一、國家間의 原料物產偏在에基한經濟機構의 歪曲을 調整하기爲하야 世界資源의 再分配를 考慮할것

一、原料物產의 旣得權及 工業製品의 消費市場으로서 植民地를 갓지못한 國家를 爲하야 右事情으로 입는不利益의 除棄手段을 講究할것

의二項이 必然的으로 上程할것으로보인다 웨그러냐하면 獨逸이오래동안 陰으로 陽으로 主張하여온바이며 또로카르노條約國인 伊太利가 十九日의 會議에서 歐洲問題의 明朗한 根本的解決은 如上한 問題에關한理解잇는 考慮가 絕對必要하다는 旨를 强調한까닭이다 그리하야 會議는 結局 獨逸의 大戰後의 一聯的要求의 最後的가장 重要項目인 舊殖民地返還要求에의導火線이 될것으로 豫想되게 되엿다

사로ー首相 英蘇兩大使와會見

【巴里十九日發電通】 사로ー佛首相은 十九日正午 駐佛蘇聯大使와 會見하고 佛蘇相互援助條約에 關하야 協議를 거듭한다음 英國大使와 會見하고 무엇인지 協議하엿다 그리고 佛國政府 閣議는 플랑당外相이 倫敦으로부터 歸還을 기다려 本日午後九時부터 開催하기로되엇다

領內外軍駐屯은 獨逸主權의侵犯

獨逸은絕對로承認할수업다

政府代辯者決意表明

【倫敦十九日發同盟】 로카르노小委員會는 十八日夜半의 會議에서 三項目으로된 暫定案을採決하야 드듸어 獨逸軍의 라인非武裝地帶 進駐에基한 國際政局의 停滯打開에 進出하기로되엇는데 獨逸政府는 右協定案을全面的으로 忌避할것이아닌가 觀測된다 獨逸政府代辯者는 十九日 午後强硬決意를 披瀝하야 가로되 로카르노委員會의 暫定的協定이란것은 獨逸政府는 到底히 受諾할수업다 第一로 佛蘇兩國間의 相互援助條約이 로카르노體制와 相容되는 與否를 常設國際司法裁判所에 附託함과 如한것은 全然無意味한일이다 第二로 獨逸領라인란드 國境地帶二十킬로에亘하는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야 國際警備軍을 設置함과 如한것은 獨逸政府의 主權에對한 不當한 制限으로 獨逸政府로서는 絕對 承認할수업다 第三으로 英佛白三國政府가 獨逸政府의侵略에 備코저 相互保障을 協定할터이라 하나 獨逸政府는國境을 侵犯하고 他國領土內에 侵入하는일은 全然 업슬것이므로 如斯한 協定은 大體 不必要한것이 아니냐 代辯者의 見解가 에누리업시 獨逸政府의 意向을反映한다고 하면 情勢는 再次逆轉을 不免할것으로 보인다

(漫畫는 히總統)

平和確保目標로 新國際會議開催

來五月브룻셀或은壽府에서

로카르노小委員會意見一致

【倫敦十九日發同盟】 로카르노小委員會의 結果、英、佛、白、伊四國代表는 來五月 新國際平和會議를 開催하야 히틀러總統이 提示한 新平和機構案을 檢討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엿는데 會議開催는 唯獨 히틀러總統의 提案에 限定치안코 新國際機構確立을 目標로 베르사이유會議以來의 歷史的大會議로 發展될것으로 豫想되다 英國政府에서는 「新로카르노體制는 聯盟規約機構에 包含된것」이라고 述하고잇는데 佛國代表部의 見解를徵하면 會議參加國은 唯獨聯盟國에限定치안코 『參加를希望하는一切의强國』에及할것으로보이므로 當然日米兩國政府도 招請할것이라고豫想되다 會議地로서는 벌서부터 브룻셀乃至 주네브가 有力한候補地가 되어잇는데 會議의 議題는英國 代表部側이 보는바로는 如左하다

一、英獨佛三國間의 空軍相互援助條約案과 리투아니아政府를 交한 東方로카르노協約案

一、中歐의集團的安全保障機構案

一、國際軍備制限協定案

一、英米佛三國政府間의 新海軍協定案은 新國際軍備制限案의 前提라고 解釋되다

一、倫敦國際經濟會議의 議題에基한國際經濟委員의確立、通貨安全、通商障碍打破等을包含할

一、베르사이유體制의 調整을目的으로한 資源再分配案

海牙法廷提訴等 三大方針을決定

十九日로카르노會議

【倫敦十九日發電通】 十九日午後의 로카르노條約國會議는 海牙法廷提訴、라인란드國際警備、英、佛、白參謀本部會議開催의三大方針을 決定한後 다시 聯盟의緊密한 提携協力을 確保增進할手段으로 來週聯盟理事會에서 左의 三個新決議案을 提出하야 採擇을 求하기로 決定하엿다

一、一九三五年四月十四日의 스트레자 英、佛、伊會議共同宣言에서 로카르노條約國 事務의 忠實한遵守가 再確立된것과 如한一方的條約廢棄에는모든可能手段으로써 反對行動에 協力할것이 豫約된事實을 理事會가 想起하고 이것은即理事會自身의 意思라고確認할것

二、理事會는 佛蘇條約의 締結及 이에反對하는 三月七日附 獨逸政府 覺書의 主張을 判定할者는 聯盟常設司法裁判所가 아닐수업다고 思惟하고 그判決에 따라 解決手段을講究할것이라고 認定한다

三、理事會는 三月十九日의 로카르노條約國會議에서 討決된 英、佛、伊、白四國協定에 包含된 諸計劃을 妥當適正한것으로 諒解할것

有田張群第四次會談

【南京十九日發同盟】 駐中大使有田八郎氏는 十九日午後二時半外交部에 外交部長張群氏를 訪問하고 前後二時間에 亘하야 第四次會談을 遂하엿다 今日의會談에서는 兩氏가 모다 去十六日以來 三日間으로 다하지못한意見의 補足說明을 行하고 또 前後四回에 亘한 今回의 會談에서 開陳된 雙方의 意見을 基礎로 將來에 다시 交涉을 行하겟다는 旨를 約束하고 會談을 終了한後 有田大使는 午後四時半外交部를 辭去하엿다

八面鋒

◇入學못한 五千兒童을 위하얀 簡易校舍도 可、二部制도 好라고 北村洞總代 蹶起。

◇普校增設을 위하얀 教育費增稅도 可라고 府議員 絕叫。

◇公職者들도 民意를 多少 알거든 爲政當局은 꿈을 꾸고잇나? 잠을 자고 잇나?

◇馬場財政의 稅制整理案은 主로 增稅에 잇는데

◇日 所得稅、相續稅、營業收益稅의 累進賦課、豪奢稅、化粧品稅의 新設은 可커니와、

◇煙草稅、砂糖稅、郵便料의 引上、燐寸稅、交通稅、綿織物、醬油稅의新設及 復活、植民地特別會計納付金의 增加는 可謂 大衆稅의 增徵。

◇非常時局을 當하야 萬人의犧牲을 要함은 無可奈何나 生活安定을 政綱에 내세운 內閣、大衆稅 增徵은 考慮할問題。

安岳의教育熱

高普期成運動奏效

◎ 一記者

다음 今番、安岳高普期成會의 事業에 잇서서 참된 鄕土愛、同族愛와 아름다운 人類愛의 發露를 본것은 亦是 우리의 永久한 記憶을 要할 일의 하나일것이다。

本來、安岳胎生으로 生活의 길을 따러서 他鄕에 가 잇는 이들 가온데서 今番 運動의 消息을 傳해 듯고 「一臂之力」을 돕는다는 意味로 送金해 온이가 相當히 多數에 達하다。個中 沙里院엔가 게시는 이는 故鄕에서의 아름다운 事業에 對하야 萬分의一이라도 돕고 십다는 激勵의 文과 아울너서 六十圓을 送金하여도 잇섯다。現在의 基金定額이 六十萬圓이니까 六十圓이면 꼭 萬分의一이 되는것이다。남을 도울때에 흔이 萬分의一이라도 돕고 십다고하지마는 그文字를 數板에 꼭 맛도록 使用한 이는 아마 이것이 처음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禁치 못하는同時에 各各 萬分의一의 힘을 다하는 이가 萬사람만 힘을 가치하는 날이면 六十萬圓 事業은 그만두고 비록 六百萬圓、六千萬圓의 大事業이라도 容易히 遂行할수 잇다는 느낌이 업지 못하다。

다음은 鎭南浦에 게신 某氏로부터 어름을 감추고 五百圓이라는 巨金을 安岳期成會로 寵送한 事實이 잇다。우리는 鎭南浦에 게신 그無名氏가 누구인것을 밝힐 길이 업거니와 어이야 말로 그無名의 이름을 千秋에 傳해도 그 이름이 갖사록 빗날 사람이다。氏의 이行爲에는 秋毫의 賣名的觀念이 업슴은 勿論이어니와、平安道나 黃海道나 하는 地方的觀念을 超越하야 오직 朝鮮을 사랑하며、오직 敎育을 爲하는 誠만이 드러난것이다。即、우리는 氏의 이行爲에서 참된 民族愛와 熱實한 教育奉仕의 典型을 보앗다고할것이다。

다음은 安岳에 와 잇는 中國사람으로부터 五十圓이 가寄附햇다는 事實이다。이이는 國境을 超越하며、民族觀念을 超越한 사람이다。勿論、그는 自己의 本國인 中國에서 살고 잇는것이 아니라、朝鮮에 와서 살면서 朝鮮 三千里의 雨露의 恩澤을 입으며、二千三百萬의 慈愛한 사랑을 바든에 依하야 도리어 自己本國에서 살고 잇는 以上의 幸福한 生活을 享有하고 잇는것이죠 이에 對한 報恩의 意味로 어떠한 일은 依例히 잇서야할것이다。아니、그이 사람뿐만이 아니라、朝鮮에 와잇는 모든 外國人은 누구나 다 이마한 일은 해야될 良心的義務가 잇슬것이다。그러나 그러타고하야 우리 朝鮮사람으로부터 그들에게 對하야 所謂의 報恩을 强要해서는 아되고、또한 事實에 잇서서 强要、아니 要求는 말고 勸告의 程度로도 말한일이 업다。要求가 업고、勸告가 업는데도 不拘하고 그가 自進하야 이러한 誠意를 表한데 對해서는 우리는 그의 崇高한 人類愛의 發揮行爲에 對하야 敬歎의 意를 表할수박게 업는것이다。

그러면 저春雨에 萬花가 一時에 피드시 今番 安岳의 事業에 잇서서 到底히 다른 境遇에는 볼수가업는 이러한 모든 美行이 發露된 根本原因이 어듸 잇는냐?하면 그것은 安岳人士의 自誠的行爲에 잇다고 할수박게 업다。天은 오직 自誠者를 誠하며、自助者를 助한다。今番、高普期成을 爲하야 誠意를表한 安岳人士들 가온데는 自己財產을 全部 다 터러노아야 八十石秋收박게 못하는 이로서 五千圓의巨額을 出金한 이도 잇고、春窮夏窮에 草根木皮와 메뚝이로 連命해가면서 幾年을 두고 모흔 幾十圓의 貯金을 그대로 내노흔이도 잇다。이誠意는 無形한가운데 感應的影響을 주어 畢竟은 남의 鄕土愛、民族愛、人類愛를 끌어 내기에 至한것이아닐까보냐? (繼續)

特許·商標
出願 公報 手續完備 閱覽指導 案內 鑑定 意匠
朝鮮特許代理局
京城光化門電停前 (電光二四七一)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一家를 비롯하는 本業과 副業 자본금과 男女老少에 不問 우선 近日 中에서 잇스면 有利한 職業으로 年中無休 說明書及見本을 즉시 申込하시오 無代 進呈
大阪天王寺區堂ケ芝町
福榮本舖

好職業
今般全羅北道會議員補缺選擧에際하야柳鍾淳君을最適任者로認하고玆에推薦함
推薦公告
柳鍾淳君
昭和十一年三月 日
金堤郡有權者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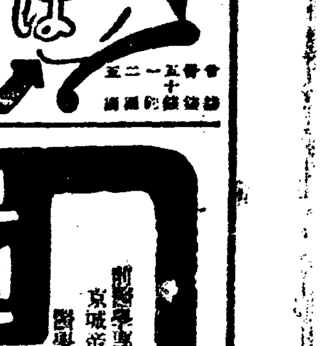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動人學生團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원료물감 (商號登錄)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一六〇八番 振替京城八〇四番

電醫師養成 責任 學則進呈
平壤府傳九里七四
認可 平壤高等電醫學院

カメラと材料
釜山本町一
岩瀬寫眞機店
電話七五五番・振替七五五番

時計
上海某外人商館融通品引受 市價의半額提供 型錄無代進呈
新義州府彌勒洞
日獨洋行


一面効散
頭痛
齒痛과 頭痛에
神經痛에도 大驗
당장잇는다고好評이자자한 面効散은 잘낫는다고 어느藥房에서나 近者에 평장이 팔닙니다 고하다
一回만 보시면 알니다 用하여 보시면 안다
本舖 東京 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忽三版
조선말본 全
延禧專門學校 文科教授 崔鉉培 著
◇朝鮮初有의標準語法。
◇最良의朝鮮語法教科書。
◇歡迎如潮忽爲三版。
◇新學期準備各學校紛忙。
定價八十錢送料六錢
發行所 京城寬勳洞一二三 東光堂書店
振替京一六一貳一番

부인약성 益母草엑기스錠
前醫學專門學校教授 京城帝大學醫學部講師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監製
婦人의厥冷性은모든婦人病의根本
益母草엑기스錠은 月經不順、帶下症、諸子宮病의 徹底的治療와 產前產後의養生에國際的藥으로確認된 古今唯一의婦人聖藥입니다 또男女를不拘하고 神經衰弱諸冷病消化不良에 特効가잇습니다
主 냉병、경도부족、설태대하증、적혈히스테리、혈기부족、하초허랭、수족궐냉오좀태、안색창백、산전산후제반악증、황도시、허리와아래알흔데、상기와두통수역나는데부종、남녀불구하고신경쇠약제냉병소화불량에특효
藥價十日分一圓卅十分五圓七十日分十圓
帶下症과子宮病에
子宮內膜炎、膣炎、膣가다루、淋毒性子宮病으로因하야下腹痛이甚하고帶下가잇는婦人은本劑를服用하시요

月經不順
月經時에下腹痛이나며全身이노근하며成年이되여도月經이업는婦人또는月經時期가一定치아니한人이本劑를服用하시면効가잇습니다
產前產後姙娠中
에는姙娠脚氣、姙娠腎臟炎等諸病이發生키쉬움으로益母草엑기스錠을繼續服用하시면母體를健康케하며胎兒發育도順調로됩니다또產後本劑를服用하면舊血이잘나와新鮮한血液을養하며母體의恢復이速합니다
京城府公平洞八八
本舖 大盛堂藥房
振替京城七八九三·電光一三五六
特約店募集
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株式會社 新井藥房

明治大學
東京 神田
大學豫科 (法學部、商學部、政治經濟學部) 第一種(三年制) 第二種(二年制) 各第一學年
◎願書受付 自三月一日至三月卅一日 ◎試驗 第一種、第二種 四月一日、二日
大學部 (法學部、商學部、政治經濟學部) 各第一學年
◎願書受付自四月二日至四月八日◎試驗四月九日부터
專門部 (法科、商科、政治經濟科) 三部(畫) 文科 (文藝科(畫)、史學科(夜)) 各第一學年
女子部 法科(畫)、商科、豫科 各第一學年
◎願書受付自二月二日至四月五日○試驗四月六日、七日 但女子部ハ四月十五日ヨリ四月十五日迄願書受理ス 人物銓衡ノ上隨時入學許可ス
高等研究科(新聞科)(夜間)一ケ年卒業
◎願書受付自三月三十日至四月十五日◎試驗四月十六日、十七日
(入學者心得及學則等ハ郵券封入申込ノコト) (入學志願者ハ東京杉並區和泉町豫科教務課宛ノ事)

生徒募集
京城實踐簿記學院 (晝夜)
◇男子部ー官廳銀行會社會計實務擔當者養成 ◇女子部ータイピスト科(簿記珠算兼修) 短期修業就職斡旋
◇願書受付四月五日限◇電車乘車割引便有 (學則送呈)京城府太平通二丁目大漢門橫入 (電本四七六一番)

十週年記念祝辭
十週年記念호랑이알범、今春梨花、京城、中央保育卒業生알범
安昌浩先生、書晚植先生、梁柱三博士、方應謨社長、呂運亨社長、金俊淵主筆外三十餘諸氏

少年少女月刊
아이생활
創刊十週年記念 三月號 三倍大號 遂出來
호랑이特輯童話、童謠、傳說、漫畫。執筆人紙上座談會。稀籍의漫畫子의心琴。歷代主幹의述懷記
十週年記念號大附錄 定價十錢 一年一圓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아이생활社

生徒募集
商業科(晝夜) 文官科(晝夜)
電氣科·建築科·職業科 各科第一學年
入資 小普六年卒 上級補欠入學
學則請求 要郵券三錢
京城蓮建洞大學通
京城商工學院
電話光一七六〇

指定 全州新興學校生徒募集
第二期男女學生大募集
一、募集人員 一年約六十名 二、三年若干名
一、出願期日 三月三十五日限
試驗期日 三月二十七、八日

南大門自動車學校
第一實習場(京城府南大門)
第二實習場(阿峴里)
(改正學則要三錢)
校舍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七 電話本局(2)〇八六七番 振替京城一二〇五六

在滿同胞로六百戶 朝鮮內에서千戶
滿洲大量移民四月부터實施
候補者를着着調査

총독부 외사과에서는 십일년도에 만주에 이주식힐 이천호이민계획의 실시에대하야 방금각도에이민후보자의 선발을착착하야 준비하고잇다 그런데 금번에는 농작의 건설공작관계와경비관계로 이천호이민의 예정을변경하야일천륙백호로축소하는동시에 일천륙백호중에서도 륙백호는 만주에 산재한 자유이민을 수용할터로 이미삼원포(三源浦)에는 일백륙십호를 수용하엿다 그러고 조선안에서 수송할것은 약천호오천명인데 전남북과경남북의 리재농민중에서 선발하야 사월초순부터 오월초순까지에 전부수송하야 영구(營口)지에 철령(鐵嶺) 유화(綏化)의 삼농장에 수용한후 금년농사를 짓게할터이라한다

西大門管內酌婦制限

시내 서대문서(西大門署)보안계에서는 관내에잇는 음식점중에 특히 내외주점(內外酒店)의 접객녀(接客女)가 불질을당하야 갑자기 만히 느러가서 경관이 그들을취체하기에 만흔곤난이 잇슬뿐더러 일반풍기에도 영향을끼치는점에 착안하야 이십일오전에 관내영업자 이십명전부를 호출하여다노코 최대한으로 세명이상의 녀자를 둘수업다는것과 각음식점의 배당녀자인수를 지정하여 주엇는데 이와함께선술집에는 녀자한명이상을 못둔다는것과 상술집에는 전연녀자를 둘수업다는것을 명령하엿다한다

【鐵線窃盜】 지난 십구일 오후열시경에 본적을 전북익산(全北益山)에둔 김군동(金君東)(二六)이란자는 시내원정(元町)일정목일번지 금천상회(金川商會)에서 전선(電線)시가 오십여원어치를 훔처가지고 수고럽게 지고가는것을 룡산서원에게 발각체포되엿다한다

五厘貨金에少年犧牲

【仁川】 인천에 오리삭전을 밧다가 손목이끈허진소년=지난십칠일오전십일시경 축항부두에서 기선에서 한칩오리씨의 삭전으로 로동중에 로동자간에 짐을빼앗는 쟁탈전을 일으키다가 맛침내손목을끈허트린소년이잇다 그는전북(全北)출생의 박세길(朴世吉)(一七)이라는대 재작년 상남수재로 인하야 친척전부를일코 각지로 방랑하든곳에 지난달 인천으로 와서 취직을 구하얏스나 뜻을이루지못하고 기근을 참지못하야 축항로동을 하든곳에 전기와가튼 참변을 당하얏다한다

府議十五名 增選事務着手
人員配定을總督府서指示

사월일일부터 구역이 확장되면서 현재의 사십만이구가 일약륙십만이구로 늘어 나가면서 부회원(府會員)의 수효도 현재의 사십팔명에서 다시 십오명이 증가할수잇게 부제(府制)에 규정되여잇다 그결정은 총독의 지시에 의하는것이나 인구가그만큼 늘은만큼 부회원을 증선하는것이 당연한 론리의 귀결이어서 총독부에서도 증선시킬 방침하에 경성부에 지시하야 경성부에서는 이선일일부터 선거사무소를 내이고 선거인명부작성을 위하여 조사중이다 이번선거는 신편입구와 구구역을합한 대선거구제로하되 증선인원은 신편입구와 구구역의 인구비례에 의하야 적당히 배정할터인데 그배정수효는 총독부에서 다시 지시할모양이다

狂犬禍千四百件
昨年中놀라운이數字

총독부위생과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작년중의 전조선의 광견(狂犬)의 피해는 일천사백륙십명으로 전년보다 일백팔십삼명이 증가하엿고 광견발생의수는 칠백이두(頭)로 전년보다 일백십구두의 감소를 보이엇다 그런데 피해자중에 광견병예방주사를 한사람은 일천삼백구십구명이고 예방주사를 아니한 피해자는 륙십일명이다 그리고 공수병에 걸린사람은 이십명이라한다

□□―明粧한 人形은 봄의 先驅者―□□

邪戀果報는窃盜
나어린情夫脾胃를마추다
窃盜로轉落한厥女

시내본정(本町)사정목이백오십열번지 엿장사하는 생경춘치(櫻井春治)의처 산파미좌자(山波美佐子)(三七)는 작일본정서에 인치당하야 취조를받고잇는데 그는 관사(官舍)전문절도의혐의자로 그가죄를 짓게된동기를듯건대 그는륙칠년전 고향인 복강현경도군(福岡縣京都郡)을떠나 서울로와서 황금정(黃金町)이정목 『파레스』여급을하면서지나든중 매일가티드나드는 전기행정이와 친하게되자 서로 동거생활을시작하야 녀급생활을 청산하고 남편이만든엿을가지고 집집으로 행상을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하야일곱살먹은어린아히까지 가지고생활해오든중 이년전에 우연히어렷슬때 동무인 하산(下山)(二三)을맛나게되자 녯그리움과 과거녀급생활의본색을 나타내여가면서 하산의하숙을 차저다니면서 불의의관계를매저 왓다는데 나어린사나히의 환심을 살녀고애쓰든그에게는 맛출돈이 업섯다 이에 사련(邪戀)에 목매인그는 돈을 어드려고 그와가티 관사가(官舍街)를전문으로 질수인이 업는틈을따라서 옷귀금속품을 절취하야 전당포에 너어 나어린 정부의 환심을 사와다고한다 피해액은 이천원을넘으리라하는데방금 계속취조중이다

同德、進明兩校
今日盛大한卒業式

梨花女專卒業式 리화녀자전문학교 제십회졸업식과 리화보육학교제구회졸업식은 이십일 오전열시에 시외신촌 그학교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엿다 졸업생은 전문학교에 사십구명, 보육학교에 십오명이엿다 이날졸업생대표로 전문학교에서는 조[illegible]양이 각각답사를하엿다(사진은리화전문졸업생들)

이십일 오전중에 시내효자동(孝子洞)에잇는 진명녀자고등보통학교(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에서는 그학교강당에서 제이십륙회졸업식을 성대하게거행하엿는데 졸업생은 일흔여덜명중에 우등생은열명인데 그중사변동안 계속하야 우등한학생은 김정순(金貞順)、홍신숙(洪辰淑)、신효식(申孝植)、송인순(宋仁順)의 네명이라고한다

◇

이날오전에 시내창신동(昌信洞)에잇는 동덕녀자고등보통학교(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에서도 역시 학교강당에서 제이십이회 졸업식을 성대한가운데 끗마첫는데 졸업생 마흔한명가운데 우등생은 최학순(崔學順)、리연세(李延世)의두명이라고한다

松の實

中等校合格者
京城女子師範
專常科入學許可者 (朝鮮人五十九人)

韓玉月 成淑子 韓丁順 龍福周 姜愛業 金順妹 金己河 金利順 金泰輝 金蘭英 金基玉 金蕙年 金德順 金玉蘭 吳泳姬 黃圭成 洪承坤 權英愛 權書得 崔順柬 崔德順 崔金嬪 朱永玉 沈順心 申順德 宋春永 宋淑伊 曺鳳子 張順奎 張善岳 趙淸淑 趙玉善 趙禮行 鄭信淑 鄭順錫 丁京祚 方順基 朴玉蓮 朴貞愛 朴孝花 朴鍾玲 朴貞玲 鄭玉淑 朴貞嬪 楊貴謙 李殷福 李寶玉 李順任 李希晉 李桂男 柳龍姬 柳瑩淑 梁鍾南 林永梅 林寶甫 林炳姬 盧在蘭 魯治國 李恒淳

演習科入學者 (朝鮮人六十一人)

再一連 河金仁 韓慶男 姜福守 金愛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昌娘 金善道 金貞惠 金貞子 金孝淳 金蓮順 洪辰淑 [illegible] 崔貞淑 崔貞淑 朱孝玉 申貞淳 [illegible] 全永淑 全淑子 成英淑 宋南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陳鍊金 [illegible] 鄭甲春 [illegible] 鄭玉蘭 鄭順南 鄭丁順 南宮琿 任仙姬 林孝子 閔丙淑 文四德 文[illegible] 朴[illegible] 朴安[illegible] 朴瑛仁 朴恩淑 朴基[illegible] 朴啓淑 朴三[illegible] 朴春[illegible] 朴來寶 楊貴春 李英熙 李東求 李玉[illegible] [illegible] 李在貞 李敏子 李潤淑 [illegible] 李明審 梁順[illegible]

講習者入學許可者 (朝鮮人三十一人)

安喜燮 姜福點 金貞玉 金先妊 金命順 金聖鳳 金福仁 金壽香 黃興敏 黃貞禮 高淑晉 孔銀珠 康貞子 朱在旼 申福禮 石金寶 孫必守 宋[illegible] 張淑淑 張福實 鄭雲松 鄭仁愛 閔泰[illegible] 朴恩卿 兪炳淑 李華馥 李蘭愛 李春秀 李貞淑 李福順 柳龍淑

講習科入學許可豫定者 (朝鮮人九十八人)

安仁善 尹金松 韓基英 金春寶 金善中 金貞順 金慶善 金鏞淑 金順任 金恩喜 金畢女 金容主 金友惠 金榮順 金允禮 金裕坤 金元子 金惠卿 金定子 金靜子 金宗鎬 金德順 金玉瑩 金千鍋 金溫姬 金銀玉 金惠慶 金俊德 金春淑 金大玉 金貞子 金壽玉 金壽善 具龍慈 嚴季子 嚴敬嬪 玄己順 元考洙 元德中 洪性淑 高英喜 黃寅玩 吳慶蘭 吳慈喜 崔承三 崔小蘭 崔春植 崔順錫 崔順執 崔秉嬉 秦孝姬 申淑澈 申順惠 秦順禮 申仁淳 成壽玉 宣壽福 宋仁順 宋明根 宋龍坡 宋蓮玉 曹金順 太丁順 趙南淑 趙己順 張明化 鄭在祿 鄭金順 白春子 白濬吉 白福開 文卿淑 邊鳳龍 朴姬淑 朴慶子 朴京玉 朴正姬 朴昌潤 朴善淑 朴忠南 朴魯順 梁玉鉉 李永嬪 李英淑 李金德 李敬淑 李寶淑 李鍾旭 李心德 李靑海 李貞順 李萬世 柳業伊 柳月熙 梁淑子 王世福 梁在姬 康奉鏈

自動車가顚覆 二名即死二名은重傷
事故原因은機械의故障으로
水原近郊에慘事

십구일오후한시 경긔도수원읍매산리(水原邑梅山里) 화성(華城)자동차주식회사 운전수 김철경(金鐵敬)(二四)이 경(京)제삼천이백사십이호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고 안중(安仲)을떠나 발안(發安)장터로 향하든도중 긔계에고장이생겨 차체가 전복되야승객아홉명중 두명은 즉사하고두명은 중상을당하엿다 이급보를 바든 수원경찰서에서는 곳계원이 현장에 출동하야 사실을 조사하는한편 운전수를 데려다가 엄중한 취조를 계속중이라한다

始興郡廳移轉을 陳情次、民間有志上京

【永登浦】 시흥군청안양이전문제는 경성부세의확장으로 행정구역변경이 발표되자 군의중추지인 안양으로 군청이전운동이 대두되여 이래공직자의회합, 긔성회의조직, 군민대회, 군수회견등회의 적극운동을 진행하든한편 군민총의에 의한진정서의작성과 기타서류의정비등에 분주한결과 그간 모든구체적방침이 확립되여 십구일오전십시지정위원인 桐田元治(朝鮮紙物株式會社安養工場長) 西原包太郞(安養郵便所長) 徐丙協(軍浦場郵便所長) 沖井松吉(沖井農園主) 松本杉藏(始興郡農村振興委員)、尹敬燮(西二面協議會員)、閔丙義(始興郡協議會員)、朴禮元(期成會副會長)、元正淳(京畿道會議員) 등제씨는 안양역출발 소창시흥군수(小ヶ倉始興郡守)와 이계당영등포 경찰서장 (二階堂永登浦署長)에게 각각진정차로 상도한다는 보고를한후 즉시입경하야 오후한시에 부영경긔도지사를면회하고 진정서를제출한후 다시총독부내무국장을 방문하고 동양의진정을하고 돌아갓다는데 이문제는 시흥군전체에대한 중대한문제인만치 벌서부터 군청건축부지기타의기부까지 신립하는주민들도 잇서서 자못맹렬한 기세를 올리고잇는터인데 금후 당국의처단이 주목된다고한다

交通安全日

날세가따뜻하야 사람이만히 나다니게되매 딸아 교통사고가 점점늘어가는현상임으로 경긔도 보안과에서는 개성(開城)、수원(水原)、인천(仁川)、등 각경찰서와련락하야 이십일 일제히 교통안전날(交通安全日)을 실시하야 교통안전에대한 지식을보급식히기에 전력을다하엿다한다

馬駿金仁完兩君出監

간도공산당(間島共産黨)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복역중이던 마준(馬駿)(三三)김인완(金仁完)(三一)량군은 오년징역을 다마치고 이십일아츰에 무사하게 출옥하야 시내 중림동(中林洞)륙번지에 투숙하고잇는중이다

無斷上京少年 自轉車窃盜로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忠南洪城郡金馬面松江里) 사십오번지에사는 황희수(黃熙秀)라는 십팔세된 소년은 수일전 봄바람을따라 상경하야 시내를정처업시 방황하든중 십구일아츰 여덜시반경 시내청엽정(靑葉町)이정목구십일번지 최일성(崔日成)과 자포압흘지나다가 김엽헤 노여잇는 그집자전거한대를 슬적훔처가지고 자기 물건인척하고 시청을따르고 타고가는것을 한강통신삼번지 천진당시계점 (天眞堂)압헤서 룡산서원에게 체포되엿다 일어서 상경할나는소년들의 부모들은 특히 주의할필요가 잇다고한다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오호츠크』海와 東支那海 東部에 잇스며 高氣壓은 中國中部와 日本中部에 七七二미리를 보이고잇다 滿洲 朝鮮 日本內地一帶는 흐리고 따뜻하다 氣溫은 昨日보다 五度內外高하것다

豫報 今夜 京城地方은 흐리며 明日은 맑아진다 京畿道全體도勿라

昨日 最高 九度一 最低 零下四度七
今朝 最低 零下一度七
今日 正午 三度

運動界

鄕土訪問計畫
東京留學生拳鬪 蹴球團도來訪

東京留學生拳鬪俱樂部에서는 夏期 休暇를利用하야 京城平壤等地에 同蹴球團과함께 鄕土訪問을 斷行코저 具體的計畫을세우고잇는데 來征期는 오는七月十日頃이라하며 그陣容은 大略다음과가티 內定되엿는바 그中에는 世界올림픽拳鬪關東豫選에잇서서 決勝戰에惜敗한 錚錚한鬪將들을 網羅하야잇다한다

◇빤탐級 朴壽(朝鮮出身、明大) 崔在俊(明大)金明坤(明大)

◇페더―級 吳完燮(培材出身·慶應)

◇웰터―級 黃漢(明大)후라이、라이트級은未定

培材校內마라손戰績

培材高普校內마라손會는 二十日午前十一時三十八分부터 各學年代表五十餘名選手가 參加하야 同校庭을 出發 歸着點으로 栗谷門까지 往復코―스에서 行한바 團體戰績은 三學年乙組가五三點으로優勝하엿스며 個人戰績으로는 金福壽(四甲)君이 一三分十秒로一着、康錫彬(三乙)君이 二着、金鐘萬(四乙)君이 三着으로入選되엿다

럭비―興行課稅

花園럭비場의 所在地大阪中河內郡英田村及盾津村으로부터 過般同競技場에서 擧行한 東西對抗럭비、新西關軍對全關西學生軍、新西關軍對全日本軍의 三試合에對하야 突然興行稅賦課의 通牒을 바든 西部럭비協會에서는 이問題를 如何히 處理할것에 注視되고 잇는바 日本럭비協會書記長 橋本氏는다음과가티말한다

『이問題는 日本럭비協會主催試合에對하야서의賦課임으로西部럭비協會로부터通知된것인데이와가튼 處事는 各種스포―츠界를 通하야서도 影響이 미칠것으로보아 善處할 생각을가지고잇스나 不應時에는 行政訴訟을 提起하야서라도 問題를 解決할方針이다』

英國에도野球進出 【倫敦同盟郵信】 蹴球와 『크리켓트』라를 代表的『내슈낼스포―츠』로 하야 外來스포―츠를 歡迎치안든 英國에서는 最近에 이르러 米國大陸의 스포―츠가 輸入되고잇다 過般 冬季올림픽大會에서優勝한 『아이스·하키』競技는 그 顯著한 實例의 하나이다 그러고 今夏에는 米國스포―츠인野球를 輸入하게되여 그實行에關하야서는 各關係者間에 大大的計畫이 成立되여잇다한다

釜山에水泳풀建設

【釜山】 朝鮮水上競技協會에서는 釜山에서는 水泳場設置에 注力하고잇는바 釜山府에서는昭和十一年度에 기여히 實現코저 經費一萬圓을 計上한後 大新町府營運動場에다 長一五五米幅十六米의 水泳場을 新設하기로 決定하고 府會에 提議하기로되얏다한다

◇寫眞은 本社來訪한寧邊崇德學校軍(上)과 平壤代表軍(下)

動界人事

▲寧邊崇德學校 陸上部一行六名은京仁驛傳에出場코저監督鄭雲輝氏引率아래十九日入京 一旅館에 投宿

▲朴壽君(明大拳鬪部員)은 夏休에 東京留學生拳鬪俱樂部와同蹴球團鄕土訪問에 對한 交涉次 十九日入京、人事次本社來訪

▲朴思根氏(前每申運動記者) 이번每申에再入社

漢城銀行

自轉車 問屋直賣 信用重視 十五円 特典付 進呈

筆生 隆文館 大阪住吉區天王寺町

朝鮮盤、日本盤 二大힛트레코―드
流行歌 滿洲想へば 音丸 二八七三三
流行歌 希望의鐘 이운다 蔡奎燁 四〇六六〇

치질 肛門病科 專門 東光醫院 大田本町一丁目 (電話四九番) 藥物治療顧問 柳東銘

大阪着名問屋案內

羅紗製品 卸問屋 春物洋服品揃 限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諸金物 木手器具、建築金物 理髮器具、家庭金物 卸問屋 (同業者에限하야型錄送呈함) 大阪市南區安堂寺橋通一丁目 正宣刃物本舖 大野合名會社

勞働 セーラー 乘馬ズボン 洋服各種 製造卸 其他小倉服一般 (商店에限하야見本相場表送呈) 大阪市東區平野町一丁目二〇番地 若原重商店 電話東八一一六番 振替大阪七六四七〇

大阪市東區神崎町四一 武村製作所

鹿矢票 春向 洋傘 メリヤス 綿布加工品 (發賣元) 合名會社 佐野繁商店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四丁目心才橋筋 電話船場四〇一九番 振替大阪六九六三六番 現金問屋 (相場表進呈)

(高級絹綿) 婦人 女兒 服 エプロン 製造卸 (限商店型錄進呈) 婦人服專門 大阪市東區島町二丁目 川澄商店
春夏 メリヤス 製造 現金卸 服裝雜貨店에限하야現物時 表進呈 大阪市上福島中央通り メリヤス專門 濱岡商店

地方駐在 調查員募集 ◎手腕과活動에依하야月收入三十圓確實◎ 一邑에一名式限함 武器手引二枚添附申込者에게案內書送呈 大阪市上福島 本社創立大正十三年 大阪相互通信社

忠南溫陽 溫陽溫泉 溫泉旅館 神井館 天安驛부터溫陽溫泉까지二十分 電話 本館 別館 溫陽 十八 十六 九

徹頭徹尾속까지 はれやか 하레야가

金 銀 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ゼイウ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포리도―루 4月新譜
新民謠 漢江水打鈴 新방아타령 鮮于一扇
流行歌 靑春과봄 金海松 오리엔탈合唱團
流行歌 黎明의水平線
流行歌 靑鳥야웨우느냐 全玉
相思草
流行歌 가련다떠나련다 王壽福
바다의젊은이
春香傳 夢中歌 丁貞烈
白晝歌
唱劇 沈淸傳全集(中篇) 第七 A沈奉事개천에빠지는데 B和主僧은供養米 第八 A佛前祈禱 B船人들어오는데
華容道全集(中篇) 第七、八、九

前朝鮮總督 故齋藤子爵閣下 追悼式御用達 株式會社 京城葬儀社 電本(2)四一五六·七番

百補丸一萬人限一劑式

代金全額後拂

僞造百補丸을注意하시요
百補丸은平和堂外에絕對無함

藥効가 廣告와 다르면 代金을 送金치 마시요

藥先送 服藥後 代金支拂

不老長壽·强精回春·更少年補藥

●百補丸은東西洋補藥中 最極上 第一完全 絕對特上 効力신기합니다

氣力이 活潑하여지고 早漏가 完全히낫고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체증이 업서지고 腎氣不足이니 腎水不足이니 하는생각은 夢中에도 하지아니 하게되며 補全身 百補하야 生理的으로 精神的으로 完全히 更少年이 되고 不老長壽케되니 이에서 더조흔補藥이 어데잇습니까 더욱이 當分間 藥先送하고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하오니 이藥効를 疑心할餘地가 秋毫만치도 업슬것임니다 只今곳注文하시요

人生에急大問題

草木은 肥料를 주어야 茂盛하고
사람은 補藥을 먹어야 健康長壽

●나무가 마르려고할때에 肥料와 물을 주지아니하면그나무가 엇더케됩니까

●사람이性慾이줄고 氣力이업고 勇氣가 나지아니하는때에 조흔補藥을 아니쓰면 마르려는 나무에 물아니준것가치 悲慘하게됨니다

이런때 藥을아니쓰면 닭잡아겨글것을 소잡아겨게되며당신의몸에큰일이 나게됩니다 이런때에 百補丸을使用하시면 모든虛弱症이 根本的으로回復되고 前以上健康하고 普通健康人보다 特別히 越等한 精力조흔사람이 됩니다 實로更少年百補하야 人體改造할수잇습니다

●性慾이 減退한사람 ●手足과下焦가 恒常濕冷한사람
●消化不良한사람 ●恒常氣力이업고
●活氣가적은사람은 早老할症狀이요長壽못할症狀이오니 一日速히第一完全하고第一조흔補藥百補丸을服用하시와更少年이되시요

事實이第一

廣告면 다 廣告가아니고
藥이면 다 藥이아님니다

廣告는 事實을 記載하여야 참된 廣告에요 藥은效力이充分하여야可謂藥이라할것입니다

代金後拂 規定及趣旨

百補丸의大特典 天下사람에게 急速히알게하기爲하야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합니다마는 試服後代金을 곳질送金하여주실人士는 官吏諸位인지 私民諸位인지 富者인지 紳士인지 無產者인지 農民인지 商工人인지 알지못하겟습니다 그러하고 누구에게던지 다後拂條件으로 送藥할수는업는 形便인故로全朝鮮道知事 全朝鮮郡守 全朝鮮面長 全朝鮮官公立學校長 全朝鮮金融組合理事 京城市內町總代 全朝鮮百石以上秋收하는 地主에게만 限하야 後拂注文에應하고 그他諸賢諸氏에게는 罪悚하고 未安하오나 商業上不得已한 事情이오니 失禮이오나 普通注文으로 해주시기를 伏望하옵나이다 後拂注文도 試服後代金을支拂하거나 藥이不合意하면 返藥하거나 할것이고 普通注文도代金을 先金又는引換代金으로 藥을受取하엿으나 萬一이라도 或藥이 貴意에不合하시면 返藥하시고全額返金請求를하시게 規定이되여잇사오니 後拂이나 先金이나 代金引換이나 服藥家의利害得失은 꼭갓습니다

後拂注文法

注文時에 먼저「後拂注文」이라쓰고 藥代金十圓은 試服後 支拂할터이니 百補丸特製一劑보내시요 送費七十錢을郵票同送합니다 送費七十錢은 先金으로受하오니 郵票로나振替나 爲替로 先送하여주시요 注文法은 貴氏名엽에官府면 官名을 記하여주시고 富者면 地主라고 肩書하시고 百石以上秋收하는地主면 地稅證明書를同封하여주시요 注文書에는必히捺印하여주시요

普通注文法

平和堂振替五番에送金하시거나 爲替로나先金十圓을보내주시던지 藥書로百補丸特製一劑代金引換付送하오하시오

普通注文人께特典

普通注文人께는 送料도本社負擔하고 또本社苦心發見한專賣權手續中인 秦始皇이愛用한 九重宮闕에秘中秘로秘藏되엿던 秘方藥超特强精補藥試用小一箱을 無料로添呈합니다 (期限當分間)

朝鮮總督府警務部檢查 販賣許可濟

神人道師 葛玄眞人 의秘方藥

百補丸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一平生無病健康長壽劑

●代金全額後拂販賣를하니 藥効의 偉大確實最極上은不問可知●

第一、第一、참第一、정말第一 조흔 補藥인故로 藥先送하고 代金後拂約束으로 販賣하고 잇습니다

그런즉이藥의効力이 얼마나 確實한지는 諸氏도 不問可知일것이올시다

●이仙藥을 販賣開始한지 五個年以來로서 先服者不知其數인데 百人이면百人 千人이면千人이다特効하다 神効하다 更生하엿다 稱讚아니하는 사람이업는故로 本社는 絕對自信을가지고 이仙藥이 天下에第一가는 補藥으로 確信하고잇습니다

●實로累試累驗한藥인故로 이러케自信을가지고 代金後拂効力保證케약까지합니다

百補丸의藥効는左와如히 참 굉장합니다

一、百補丸을 服用하면 爲先 手足과 下焦가 불가티 더워집니다

二、精力이 潮水가티 每日每日느러서 事務를 自然不知中 만히보게되며 深夜又는 徹夜하야 不眠努力하여도 翌朝에 無難히 早起하게됩니다

三、飮食을 自然히 만히 잡수시게되며 체증가튼것은 어느때 업서젓는지 알지도 못하게 업서집니다 口味도勿論조와집니다

四、一週日만連服하면 불가튼 性慾이 不知中爆發되며 連服하면 用之不渴 精源이 泉湧하며 玉骨仙風 皮膚에 주름살이펴지며 不老更少年이되며 ○○과○○두가지 人生最大의 欲望을必히 滿足하게되며 永久히 幸福한 身體의 所有者가 될것이올시다

五、遠山松葉數를能히세일뜻 百補丸을 服用하기始作한지 五日間만지나도 몸이漸次輕快하여지며 遠山의松葉數를 能히 세일뜻한 氣分이生합니다 이것은 特히 精氣와元氣가 충신培養된까닭이며 몸이輕하야지는것은 體重이減하여지는것이아니요 筋骨이 튼튼하여지는까닭입니다

六、體重이增加됨 服藥前과 服藥後 體重을 다라보시요

七、몸의健康은家運의 衰退를回復하고○○의健康은 不和한家庭을·和睦케함 몸의 健康 精神의健康 ○○의健康은 不和한家庭을 和睦케하며 衰退하야가는 家勢나는하여가는 國運도 必히挽回할수가 有합니다

奇哉●强度의動物ホルモン植物ホルモンも多量含有

八、身體가 虛弱하면 興旺한家運도 多傾한家勢에못이기며 健康二字뿐입니다

八、連日深夜 讀書視務하여도 翌朝에 無苦早起케됨 連日하야 每夜子正後一時 二時까지 硏究讀務 讀書하여도 조금도 疲勞치안코 翌朝에 何等疲勞가 無히 早起케됨 是果然百補之緣由 藥効偉大之證

九、百補丸은 完全圓滿한補藥이됨 補藥中에는 或一部機器만 補하는藥도 許多하야或人有効或人無効하지만은 百補丸은 人體百部를 全部理想的으로 補身하는 靈藥이요 二十餘種 珍貴한原料가 配合하야잇는 神人道師葛玄眞人의 救世的秘方藥입니다

十、壽氣가 大增進되야 ○○의回數가 不可遮之勢로 增加됨

十一、每日 公事 私事間 處理件數와 義務時間이 不識中自然延長됨 身體와 精神이 疲困하지아니하니가 自然히 硏究와事務處理를 만히하게됨니다

十二、世上을 樂觀하며、亂麻가튼 事件도 能히容易하게 處理하게됨니다 大端히 不平한일과 성가신일을 當하여도 마음과 머리에화가나지아니하고 完全히무슨일이든지 判斷됨으로 世上에悲觀할바업고 무슨일이던지 참으로刃刃

十三、血色이 조와지며 얼골에주름살이 펴지며 젊어지며 玉骨仙風이됩니다

十四、힘이생깁니다

十五、사람이침착하고점지안어집니다 ●神經衰弱가튼것은멀리멀어갑니다

十六、長久連服하면 久淋도消滅되며房事後疲勞不覺은 참신기기묘可驚其効

十七、淋疾根治後는 回陽키爲하야 必히 百補丸을 服用하여야합니다

●健康한身體라야 世上에서 살滋味도잇고 健康한子孫을 得합니다

●百補丸은 絕對的 一時的 効果를 내는藥이아니고 道師神人 葛玄眞人의 秘方劑입니다 葛玄眞人은 漢學者들은 다잘아시는 道師입니다 代金特價一劑拾圓·重用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周旋人게一劑無料進呈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도 爲始健康

效力絕大한 持藥을長服하면 不老는勿論……事業成功도百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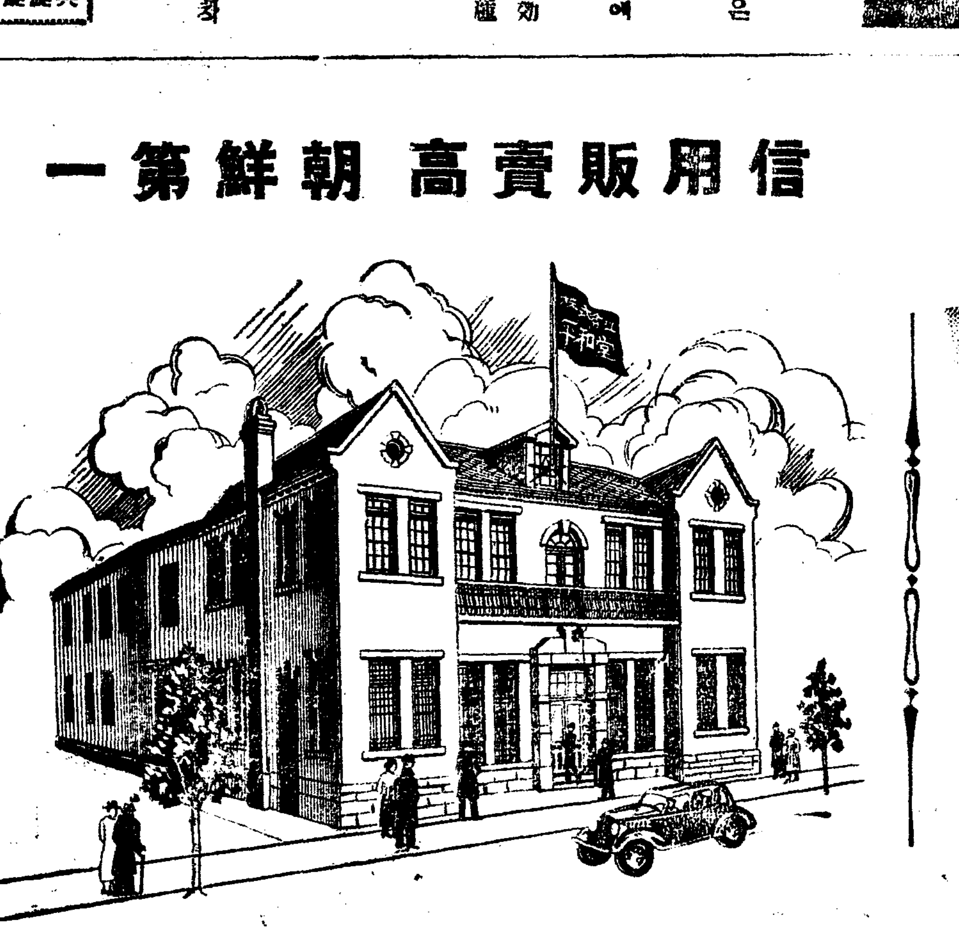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洞(五·五)(前中央日報社跡) 振替京城五番·電話光化門六三二一番

信用販賣高 朝鮮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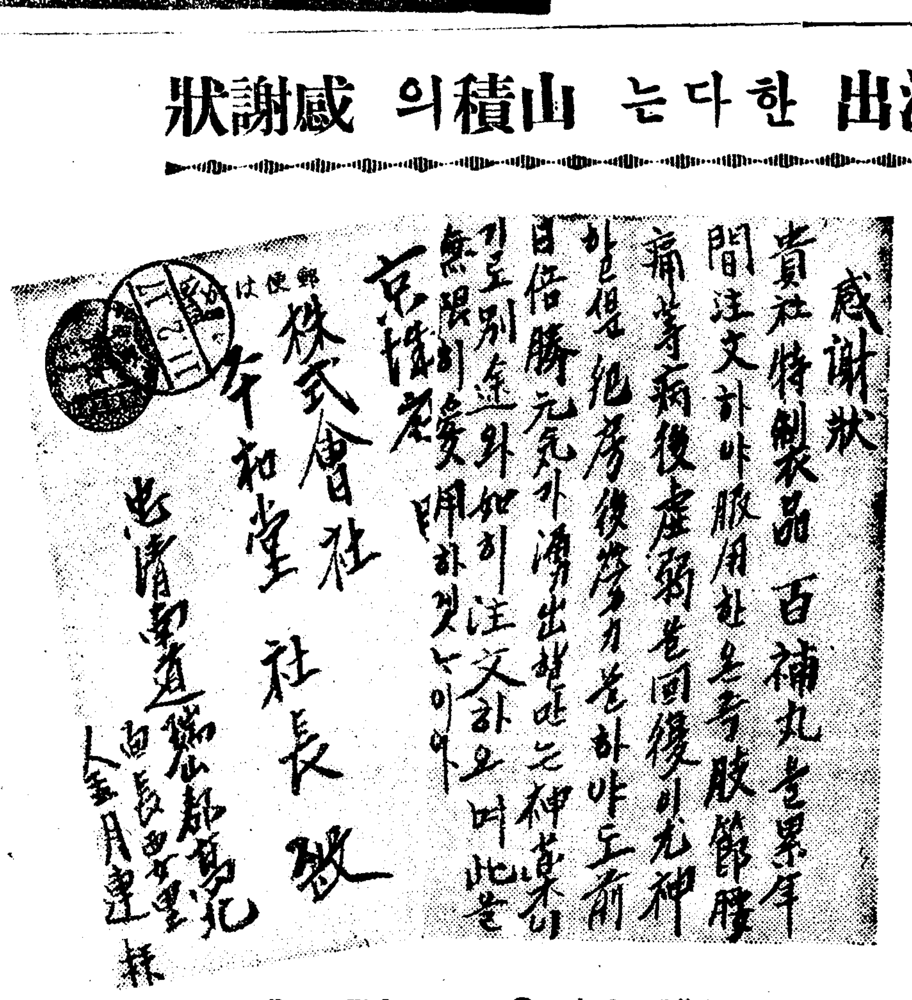
販賣特約

地方의 特別히 信用確實한 病院이나 醫生이나 特別히 信用確實한 漢藥局이나 洋藥局에特約販賣를許함(有特別有利하신條件)(一年後라도賣價로返還함)特別히 實效確實한 藥인故로 醫師나醫生에게 特約販賣를目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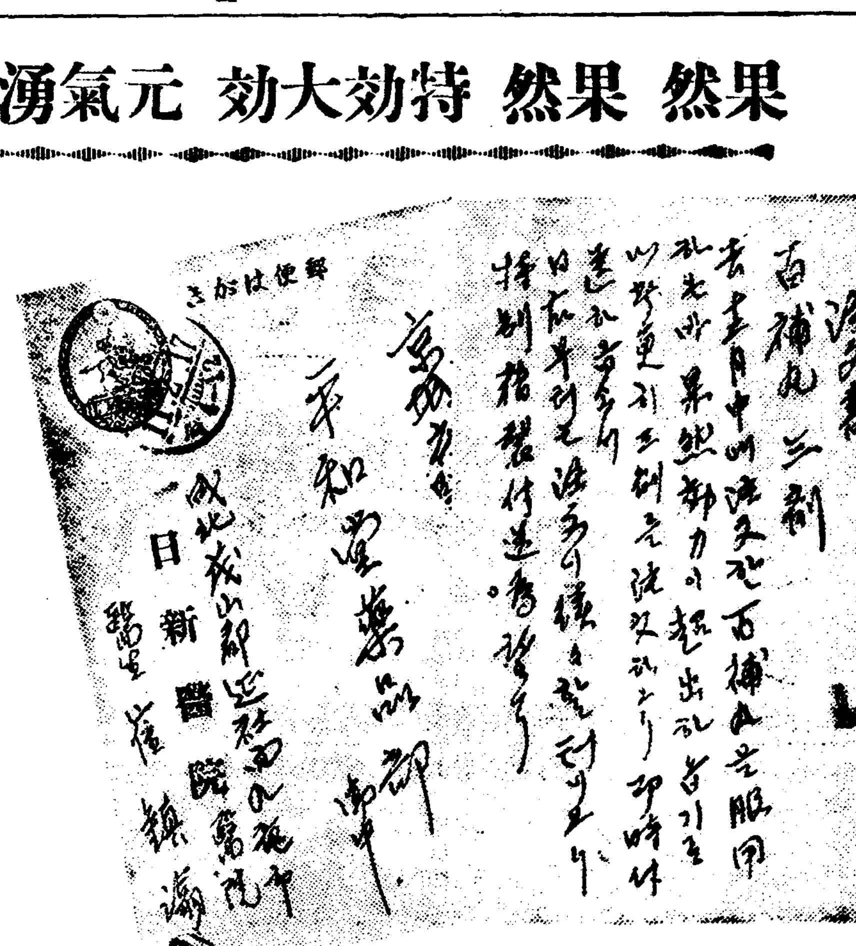


平和堂本社 三百間의大洋屋

果然 果然特効大効 元氣湧出한다는 山積의 感謝狀



犯房後더욱 元氣湧出感謝狀



果然特効超出感謝狀

東[illegible]로 조흔 補藥은 大衆의 眞正한 感謝를밧는다

"조선사람들은 왜 짜게먹는가"

우리몸은 五%이상이 소금 『鹽分』에 대한 이야기

부억안에서 소중한 물건이무엇이나 무른다면소금도그하나올시다。장도 소금、김치깍뚝이도 소금、기타의 반찬도 모다 소금으로 소금처럼 많히 쓰이는것이 업습니다。예날의 어떤 공주가 아버니 임금을소금으로 비유하얏다가 고만 쫏겨 낫다고 하지만은 소금으로 비유한것이 아버니 임금을 끔찍이 앎앗다는 표시입니다。흔하고 갑시 싸다고 임금은 도리어 회를 낸모양이나 흔하고 갑시 싸도 소중한물건임에는 틀림이 업습니다。이제부터 소금에 대한것을 연술하겟습니다。소금을 늘 다루시는 안악네들로서는 한번 읽어 두시기를 청합니다。

사람이 죽은뒤 화장을지내면 탄산(炭酸)이라는지를 이라는지는 다 날어담어나고 오즉 소금종류만이 재로 남는데 재로 남는것이 얼마나 되는고 하면 살엇슬때의 체중과 비교해서겨오 이십삼분지일쯤밧게 더 안 됩니다。그 적은 분량에서도 빼다귀의 성분(成分)으로 되야 잇는것이 대부분의 오니 되니 혈액이라는지 만 그관속에서 생활기능(生活機能)을 돕고 잇는것은 불과시 그중의 극히분지일입니다。

다른 영양분에다가 대봉찌댄 소금종류가 아조 적은것은 사실입니다。그러니까 재래의 영양학자들도 단백질(蛋白質)이나 지방(脂肪)이나 떠들면서도 소금만은 그다지 치지를 안 하얏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잘못엿습니다。영양학이 발달됨에 따라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것을 차차 알게 되얏습니다。

×

[illegible] 비둘기와 개에게 다른영양분은 다주고 소금만을 안먹이어 보앗더니 그결과 비둘기는 십삼일 내지 이십구일만에죽고 개는 이십육일 내지 삼십륙일만에 죽더랍니다。그도 그럴것이 소금종류는 즉접 그자체도 생활기능상 업서서는 안되지오만 소금종류로부터 되야나오는 이온이란것은 더욱이업서서 안될것이랍니다。

그런데 소금종류라고 하야도 이런데 잇는것 저런데 잇는것이 다 다르니 위선 사람의 젖속에 잇는것과 우유속에 잇는것도 서로 다릅니다。사람의 젖속에는 비교적 적은대신 질이 조흐나 우유속에는 비교적 만흔대신에 질이 납봅니다。하여튼 모든음식물속에들어잇는 소금종류로만은 인체생활상 아조자라지 못합니다。그까닭에 특별히 소금그것만을 맨들어가지고 너코 처서 터먹게 되는것입니다。

짜게먹는것은 미개한탓일까

그런데 왜 조선사람들은외국사람보담 짜게 먹으며또 왜 시골사람들은 서울사람보담도 더짜게 먹습니까? 흔히짜게 먹는것은 문화가 덜 발달된표적처럼 알아서 아조 말하기를 끄리는 경향도 잇습니다 과연 문화가 덜 발달된 사람이라야만 짜게 먹습니까? 거기는 그러타할 증거가업는만큼 그저 한개의 억치이상 아모것도 아닙니다。그보담도 그사람네가 어떠한 음식물을 먹느냐는데 딸아서 소금종류를 필요로하는 정도도 달러질것이 사실입니다。즉 조선사람의 음식물이 외국사람과 다르고 또 시골사람의 음식물이 서울사람과 다른데서 더짜게먹는 원인을 차저야 합니다 짜고 먹는다고 조금도 창피할것이 업습니다。군물을 안 자실 정도로는 얼마든지 짜게 먹어 조습니다。

×

어떠한 음식물이든지 배人속에 들어가서 소화되고다시혈액속으로 들어가서 흡수(吸收)되지 안습니까?그런데 혈액속에서 린산가리(燐酸加里)와 소금이 맛나게되면 화학적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린산소다(燐酸曹達)나 염화가리(鹽化加里)로 되고 또 린산소다나 염화가리는다시 콩팥을 거치어 오좀으로 내보내게됩니다 본래 육식보담도 채식에잇서 이러한 화학적변화를 이르키게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식을 할때보담 채식을 할때소금이 만히 랑비되고 딸어서랑비되는 소금을 보충코자도 따서 소금을 요구하게 됩니다。주로채식하는 조선사람이 짜게 먹는것은결코 괴이치 안습니다。서울사람보담 더일층채식을만히하는 시골사람이더짜게먹을것도명료한일입니다。

영국황제의옥좌

영국황제폐하의 옥좌는 종래오래동안 황제폐하、황후폐하、황태자전하 세분의의자가 노여잇섯습니다만 이번에 등극하신황제는 독신이시기때문에、의자가 한개만 노이게되엇습니다

우리차지

영석이는 말하는것도 우수워。저의 반에서 원에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꾸중을 드럿다나。그 애기를 집에 와서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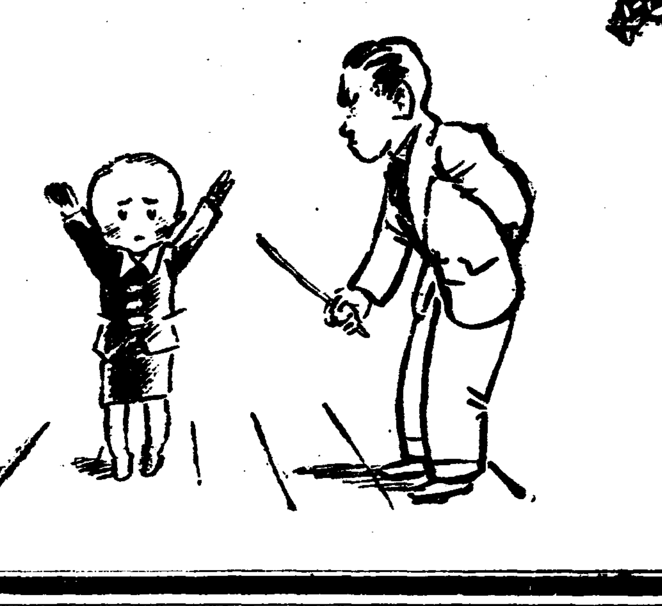
『선생님이 번(벌)을 서라니까 고만 영군(얼골)이 빵(빨)개젓서』 하겟지。

그래서 지금도 아저씨가 보기만하면

『요새도 영군이 빵재지니』

하고 놀리신단다。

(글쓴사람 이태동)



童話 망두석재관 (二)

金相德

『사또님! 망두석은 산사람이 아니라 돌맹이로 맨들어세운것이올시다。』

하고 한사람이 간신히 말슴햇지만 그래도

『잔말말고 어서가서 잡어오너라』하고 호령하시는지라 아모리 우수운명령이지만 하는수업서 우루루 몰려가서 그비단장사가 비단짐을나려노코 쉬엿다는곳에가서 거긔옷득서잇는 망두석을 포승으로 칭칭감어서여러사람이 굴리여왓습니다。

『비단도적이라고 망두석을잡어갓다지』

『망두석을 잡어다 재판한다지?』

이런소문이 원고을에와짝퍼젓습니다。

그래엇던사람은 원님이밋첫나보다하고 또엇던사람은 무슨계교를 부리나보다하고들 수군수군 야단들이엿습니다。

『대관절 망두석이란놈이 말을해야지재판을하지』

『그러게말야 그재판 볼만한걸……』

『우리구경이나가세 처음보는일이니』

『나도가겟네』『나도가겟네』『어서가세』『어서가세』하고 원고을이 벌꺼뒤집히여 나도나도 늙은이 젊은이할것업시 모다망두석재판을 구경한다고 모여들어서 와글와글떠들엇습니다。

원님께서는 밧게 구경꾼이만히 모여잇는것을보시고 부리는하인 한사람을불러서

『재판구경을 하게해달나고하거든 그중에 제일큰잇서보이고 점잔은 사람만골라서 [illegible]명만 드려오게하여라』

말슴하셧습니다 원님께서 넌즛이 일른는말슴을듯고 문을쪽직히시고서서 사십명만 골라서드렷습니다。몃백명이나되는지 다른사람들은 들어오지도못하고 밧게서 와글와글 떠들고잇는데 안에서는 재판이 시작되엿습니다

돌맹이망두석을 포승으로 묵근대로 마당에세우고 원님께서 대청우에서 호령호령하섯습니다。

『네이놈 도적놈이 네입헤잇는 비단짐을 집어가는것을 못보앗슬리업스니 엇던놈이집어갓는지 본대로말해라 만일바른대로말하지안흐면 네가도적놈하고 공론하고 집어간것이다 그러치안흐면 네가 집어간것으로 인정할테이다』

그러나 돌맹이가 말을할수잇겟습니까?

『어서 이놈아 말을해라 본대로말해라』

하고호령호령 하시는것을 라졸들과 구경꾼들은 손으로입들을 가리고 터저나오는우슴을 억지로들참엇습니다

『저놈이 아모말 안하는것을보니 제가집어간모양이다 저놈이 바른대로 대답할 때까지 볼기를 때려라!』

라졸들은 터저나오는우슴을 억지로 참으면서 나와 망두석의 볼기를 때렷습니다。

『그놈이 마저도 말을아니하니 때일로도록 단단히때려라!』

명령이 나리니까 때린볼기를 내서 서 때렷습니다。

그러나 소용잇겟습니까 볼기채만 딱딱! 하고부러저 토막토막이 낫습니다。

엇더케도보기에 우습던지 구경하고잇던사람들이 허리들을붓들고 깔깔깔깔 우섯습니다。

그우슴소리를듯고 원님은 깜짝놀라시는척 하시며 그곳을보시드니 두눈을 크게뜨시고 무서운호령이 나렷습니다。

『응? 저놈들이 엇던놈들인데 감히이마당에를 몰어왓느냐』

구경꾼들은 뜻밧게 벼락을맛나 우슴도 다드러가고 얼골이 붉에저서 엇지할줄을몰으고 절절매고만잇섯습니다。

『저놈들을모다묵거서가두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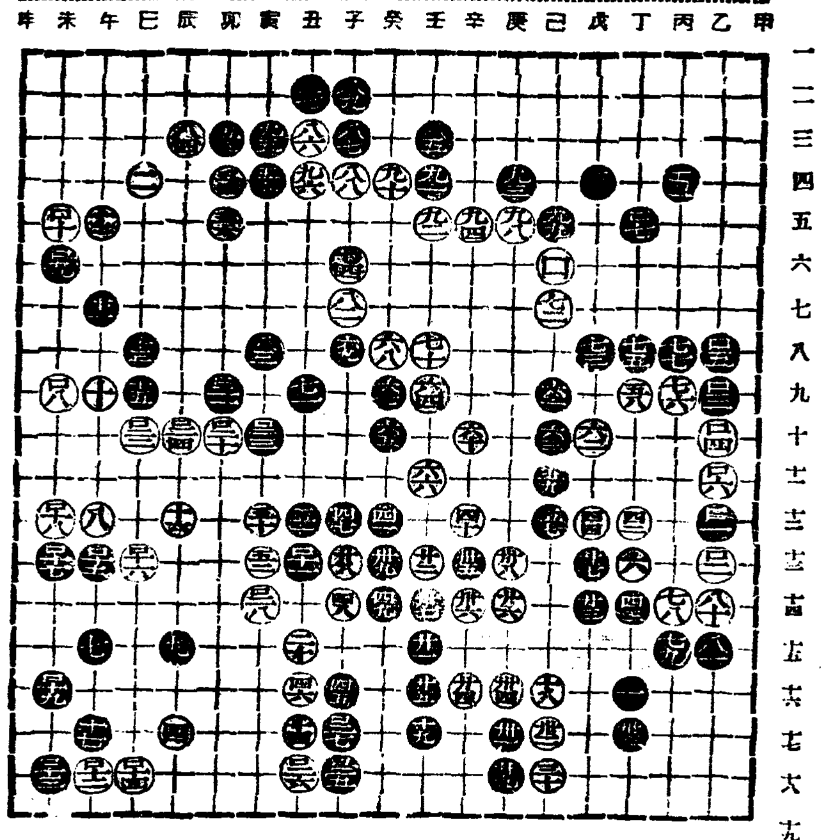
호령이 서리가티 나리니 큰일낫습니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8=

白 丁奎春

黑先 權秉郁

●一一三 未의十八
○一一四 巳의十八
●一一五 午의十三
◎一一六 巳의十三
●一一七 未의十三
○一一八 未의十二
●一一九 未의十六
○一二〇 卯의十
●一二一 卯의九
○一二二 巳의十
●一二三 寅의十
○一二四 辰의十
●一二五 子의十八
○一二六 丑의十八
●一二七 子의十七
○一二八 寅의十四



◆觀戰者談

白一二〇(卯의一〇)과 白一二二(巳의一〇)는 當然이다

黑一二七(子의一七)은 此際에 小部分의 惡이 有하다

白一二八(寅의一四)은 卯의 一六이 實利가아닐가

家庭醫學

눈물이흘러

問 삼구세되는남자인데 오후만되면 추웁도중심절이되면 눈물이흘너서길을것지못하오며 찬바람이불면 떠욱심하고 또눈섭이매우적으며 검지도 안습니다 조흔치료법을가르처주십시요 (讀者)

答 당신병은진찰치안코서는알수업습니다 오루변전부터 그러타하니 속히안과전문의사에게진찰바드보시고 치료하게하십시요 눈섭이 적고 도검지안한거슨은치하기난어려울것입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수족이항상차오

問 금년삼팔세된 소변인대춘하추동항상 수족이찹니다 무슨병이며 치료는엇지하여야되겟습니까 (咸南一讀者)

答 수족이 특별히 병적으로찬거슨레ー노氏병이라고 할수잇습니다 그치료는 병자자신의 체질여하에따라 일정치안한고로단순하게 말삼키어렵습니다 한번 내과전문의에게 진찰을 바더보게하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소변이누릇소

問 중학교에 단이는 십구세남자임니다 일주일전부터 소변이누르며 눈도노래지고 침도노랏습니다 병원에는가지못하고 약방에무러보니 황달증이라 하야 매일약을복용하나 낫지안습니다 여려군데 무러보나 말이다다름니다 엇던원인으로 되겟실까요 약명과 한약중어느것이 조흘지까 바라도조코 대변은보통입니다 (桂洞一讀者)

答 대개는가답아성황달(加答兒性黃疸)인것갓습니다 소화불량으로담도(膽道)가부어서생기는거심니다 완전히 나흐랴면 하달간치료를요할합니다 양약을자시는것이 조켓다고 생각됩니다 오식은 기름끼잇난거슨해롭습니다 그런고로명중에난 채소식을하하시요 병원에가서 담액(膽汁)을 빼면속히나흘수잇습니다 래두면 간장병을이렷키게되것니다 좌긔처방을 나흘때까지 연복하게하시고 용요수난될수난대로만히마시게하십시요

一、人工기르스泉鹽 一五、〇
멘타水 一〇〇、〇〇

右各一日量分食後服用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地下村 (八)

姜敬愛 作
熊超 畵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 누엇다。어머니는 물러안자 아들의눈치를 살피다가 혼자하는 말처럼

『어듸가 아픈모양인데 말을해야지 잘놈가튼이라구』

이말을 남기고 일어서 나갓다。한참후에 어머니는 푸성구국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들어와서 아들을 이르켯다。칠성이는 언제나처럼 어머니 팔목에서 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안자 떨리는 손으로 숨가락을 들엇다。

『이애야 어듸 아프냐?』

아까와 달리 어머니 옷가에 끄립내가 풍기고 숨소리에 따라 밥내 구수한데 무겁던몸이 가벼워진다。

『아아니』

말을 조리는듯에 비로소 안심하고 아들이 국마시는것을 들여다 보앗다。

『에그 큰년네 어머니는 오늘 밧헤서 애기를 낫다누나 내놈업시 가난한것들에게 새끼가 무어겟니』

아까 버드나무 아래서 본큰년의 어머니가 떠오르고 으아으아 울던 애기 우름소리가들리는듯 또 영애의 그꼴이 선히 나타난다。그는 눈쌀을 찌프렷다。

『글세 새끼가 웨태어 진절머리나지』

한숨석거 어머니는 이러케란식하고빈그릇을 들고 나가버린다。칠성이는 방안이 떵기도 하지만 큰년네 일이 궁금해서 그만 일어나 나왓다。

뚤한모롱이에 싸여잇는 나무단에서 지른 풀내가 산속인듯십게 훌려나오고검푸른 하늘의 별들은 애기눈 가티 이뻐다 왱왱그리는 모기를 쫏치면서 나무말러모아논곳에 주저안젓다 은 갈잎이 버석버석 소리를 내고 더운김에 밋이 뚯뚯하엿다。어머니가 저리로부터 온다

『칠성이냐 웨나왓니』

버석 소리를내고 겻에 안는다。땀내와 영애의 똥내가 훅 끼치므로 그는머리를 돌리엇다。어머니는 젓을 꺼내여기에 물리고 한숨을 푹 쉬인다 무슨말을하려나 하고 칠성이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나 안타깝게 병든 고양이새기가튼 영애를 어루만지기만하고 쉽사리 말을 열시안헛다

해종일 김매기에 그몸이 고단하겟고 더구나 산에가서 나무해오라기에 그몸이 지칠대로 지첫스련만 또 애기에게까지 시달림을바드니 오늘밤이라도 잘만늘면 깨지 못할것갓다。그렇게 피로한몸을 돌아보지안는어머니가 어딘지 모른게 미웟다。

『게게집애는 자지도안하!』

칠성이는 보다못해서 꽥소리첫다。영애는 젓꼭지를 문채 우롱을 내첫다。

그애가 어디 자게되엇나 몸이 아픈데다 해종일 굶엇고 또 이리 젓이안나니깨하는 말이혀끗에서 뚝 떨어지려는것을 꾹 참으니 눈물이 핑그르르 돌앗다。

『오오 널보고 안그런다 어서머』

겨우 말을 마치자 눈물이줄줄 흘럿다 문득 어머니는 이 눈물이 젓으로 흘러서 영애의 타는목을 추겨젓으면 가슴은엿다지도 쓰리지 안흐련만 하요다。

한참후에 어머니는

『글세 살지도 못할것이 웨태어나서 어미만 죽을 경을치게 하것니 이재가보니 큰년네 애기는 죽엇드구나 잘되기는 지드라만…에그 불상하지 얼마나 밧고랑을 타고헤매이엇는해 에기 머리는 그냥 훌투성이더라구나 그게 살면 또 병신이나 되지 뭘하것니 눈에 귀에 훍이잔뜩 들엇드라니 아이그죽기를 잘햇지 잘햇지!』

어머니는 흥분이되어 이럿케 중얼 그린다。칠성이도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쉬엇다。그러고 자신도 어려서 죽엇드라면 이모양은 되지안홀것을 하엿다。

『사는게 뭔지 큰년네어머니는 내일 또 김매러 가겟다드구나 하로쯤 쉬어야 할텐데 이게 이게 어느때냐 그럴처지가 되어야지 업는놈에게 글세 자식이 뭐냐 웬자식이냐』

영애를 나아노코 그다음날로 보리마당질하든 그지긋지긋한든 때가 떠오른다。하늘이 노라코 핑핑돌고、보리이삭이 작앗다 커보이고 도리깨를 들때 나릴때 아래서는 무엇이 뭉클뭉클 나오다가 나중엔 무엇이 묵직하게 매어달리는듯해서 좀 만저보랴 스나 사이도 업고 또 남들이 볼까꺼리어 그냥참고 잇다가 소변보면서보니허벅다리엔 피가 흔전햇고 또 주먹가튼살덩이가 축늘어저잇섯다。겁이 더럭낫지만 누구보고 물어보기도 부끄럽고해서 그냥내버려 두어나 그살덩이가 오늘까지 놀나저서 들어갈줄모르고 또 무스름흥흥을돌리고잇다。

新血圧降下剤
ノルマトン
노루마돈

應用完全・奏效佳良

1. 엇더한高血壓에나 應用할수잇고 奏效極히佳良한것………
2. 常用藥으로써連用하여도副作用업고또下降作用은一定한度에서끈친것……………
3. 作用時間이오래고때때로服用을中止하여도一定時日低血壓을維持하는것……………
4. 常用하고血液及全般的으로榮養價値를가진것……………
5. 價格廉價等을主로한特點인것……………

(說明書申込次第進呈)

粉末 25瓦入 圓 75 100瓦入 圓 2.10
錠劑 100錠入 圓 1.45 (其他에注射液散粉末大量入잇슴)

SANKYO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오리자닌結晶
(뻬타민B의結晶)
←
오리자닌(뻬타민BI)鹽酸鹽의結晶을보임

脚氣에
オリザニン
오리자닌

當會社는 先年예임의 純粹하다고認定된オリザニン(뻬타민BI)의結晶과 抽出에成功하야現在オリザニン注射液及十倍强한카오리자닌 注射液은 共히本結晶을 溶解하야서 製作한것이다。

注射液은無色透明・注射는無痛・効果는的確

特히 十倍强한 카오리자닌注射液은 1・0瓱中0・5瓱를 含有하고 衝心型其他 重症脚氣에 其1・0—2・0瓱를 使用하면 迅速히 危機를 離脫식혀서 回生의 効力을 發生한다고 말한다。

オリザニン에도 前記注射液外 粉末、錠、液、엑기스의 各製劑가잇다 어느거나 [illegible] 生理的試驗에依하야 其効力(뻬타민BI)를 檢定한것이다。

脚氣、食慾不振、便秘、運動障害等의 뻬타민B缺乏諸症에는勿論 뻬타민B消費를 亢進식히는 結核肋膜炎、姙產等에 推奨되야 또 人工榮養兒의 榮養障碍、消化不良及 스포츠맨의心臟力保持增進及疲食復恢促進의 目的等에 賞用되고잇다。

三共의藥品 의定價와簡單한說明과를揭載한冊子『三共의藥品』잇스니所用되는분은朝鮮日報名記入後申込하면贈呈합니다

SANKYO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クッチンランラ

에넌단면하만기시ㅣ노넌한저숲
——다니심아곳을것언묘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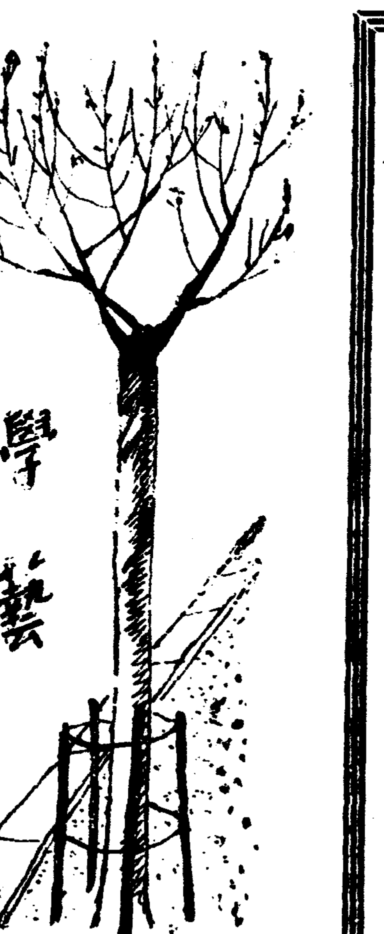
科學茶房漫筆

人造人 (1)

萬海

換近에 흔히 新聞紙를 通하야보면 西洋에서는 人造人을 硏究한지가 오라고 製作한것도 어느程度까지 成功하야서 人造人이 말도하고 機械도 부린다 하거니와 말을하고 機械를 부리고 其他作用을 한다는것이 人造人이 무슨生命이 잇서서 自動的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纖巧한機械로 그리되는것이요 아직 機關에 지나지 못하는것으로 人造人이라고 할수가 업스나 그 硏究가 漸漸進步되야서 生命까지 만들수가 잇다면 完全한 人造人이 생길는지도 모르는것이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自然人과 조금도 다름이업는 人造人을 만들수가 잇는가 업는가하는 問題에 對하야는 그問題의 自體가 容易히 解決할수 업슬뿐아니라 宗敎關係 科學關係 其他 여러가지의 關聯性을 가진것이라 함부루 말하기가 어려운것이다 그러한 交際的修辭를 떼어버리고 單純한 學理的으로 말한다면 確實히 可能性이 잇다고 할것이다 왜그러냐하면 宇宙안에잇는 物件은 무엇이든지 그物件을 形成하기前에도 그物件을 形成할만한 原子又는 分子가 어느位置에든지 存在한것이다 그리하다가 어느 機會 即 因緣을 만나면 그 物件이 될만한 原子又는 分子가 適當한質과 量으로 和合이되야서 마침내 그物件이 되는것이다 生命도 그러하야서 無에서 有가되는것은 아니다 生命이라는것도 生命이 되기前에는 그生命될만한 材料의 質과 量이 宇宙의 어느位置에든지 分散하야 잇슬뿐이오 그것을 適當하게 會合시킨다면 반듯이 生命이 될것이다 다만 問題는 사람으로서 다시말하면 이사람의 智識과 이사람의 技能으로서 그物件이 될만한 그중에도 生命이 될만한 材料들을 能히 宇宙間에서 낫낫치차저내고 또 그것을 生命이 될만한 適應性으로 和合할수가 잇너냐 업너냐 하는것이니 그것은 사람의 智能問題오 그理致의 有無問題는 아니다。



文藝時評

浪漫인가 寫實인가?
—今月創作의吟味—

白鐵

今月의 創作中 내가 主로對象하려는 四五篇의作品가운데서 첫재로 注目하려고하는 作品은 李孝石氏의 『들』(新東亞)이엇다

李氏의力作 『들』에대하야도나는 浪漫인가 寫實인가의 側面에서 始作하지안코 一層 平凡한곳에서부터 出發하려고한다

最近에읽은 李氏의두作品 『山』과 『粉女』와比較할때에 이『들』은 『粉女』가아니고 『산』의 姉妹篇이엇다 偶然히題目이 類似한것도 그러하거니와 그보다는 이 두作品에表現된自然情熱!그 共通된 作家情熱이 이두作品의 血族關係를 決定하고잇다

某誌의作品評中에서 前篇『산』에대하야 加評할때에 나는 이作家에게 十七世紀의『루소오』의 情熱이 흘느고잇다는것을 指摘한일이 잇스나 이『들』가운데는 그色彩가 一層濃厚하게 나타나잇다 그리고 前篇에比하야『들』에는 이自然情熱이 훨신 成功的으로 取扱되어잇는까닭에 『산』의 不自然味는 퍽덜니어잇다고 본다 이程度의成功에 이르면 自然의情熱이 現代에는 不可하다든가 不自然하다든가 指摘하는것은 批評人의 不當한 指摘이라고 미더진다 왜 그러냐하면 이 自然界의 情熱은 『들』에서는 現代의 讀者를 不自然味가 업시 說服하고잇는것을 是認하지안흘수업스니까!

作者는 前部에서 몬저 自然의를 無數한 各種의 花草를 精細하게 彫刻하며 그 新鮮한 感覺과 凝縮과 鮮明한 描寫로 보여주며 나가서는 그것에 對한 人間, 主人公의 情熱『나』는 들이 언제부터 이러케 조와젓는지 모른다。지금에는 한그릇의밥 한권의책과 똑가튼 지위를 마음속에 차지하게되엿다……사람은 들과 떨려야 뗄수업는 인연에 잇는 것갓다!』고 告白한다 이러한 情勢이 나중은 一層發展하야 人間의 原始的 野性的 生活憧憬을 憧憬하는것도 當然한 일이다 『개울』속에서 한자웅의 개가 작난치고잇는것이다 하늘을 쳐다보지안코 풀을 붓그려워하지안코 사람의 눈을 꺼리는 법업시 자웅은 터노코 마음의자유를 표현할 뿐이다……』라고 그野獸의 光景을 快히 許諾하며 그와 類似한 場面으로서 옥분』이와 主人公이 그들의 서로 『기실 땀기를홍치려 청량음텀을때와 똑가리 가슴이 후둑후둑 떨렷다』는 心情으로 野合하는 場面을 說明해주고 잇다 여기에는 確實히 文明의 人爲性에 對하야 自然을 素朴한 主張하고 腐敗한 社會에 比하야

原始人間, 그野趣生活을 憧憬, 理想하는것이엇다 그리고 그原始的創造에 對한 自然人으로서의 法悅에 가갑은것이 잇지안흔가?

自然歸還!의 情熱이 前世紀의 文學에 두가지 系統의 流派를 傳한 中에 浪漫派가 더욱 그 血統을 直系로한것이 事實이라면 우리들은 이『들』의 自然情熱의 背後에서 一定한 로맨티시즘을 發見하려는것은 決코 不當한 追求는 아닐줄안다 事實自然과 野性의生活에 대한 作者의 그憧憬讚美, 享悅의 情緖는 어느程度까지 로맨티시즘의 發露가 아니엇슬가? 그것에 대하야 作者도 同로 否認할 意慾을 늣기지안흘줄안다

하나 『들』의 로맨티시즘에대하야 作者에의 許諾을어더 그데로 是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最近 東京文壇에서 林房雄等이 高唱하는 또는 新年에 林和君 等이 主張하는 浪漫의 精神과 同一한 象는 아니것이엇다 로맨티시즘! 이란 『라브링』의 말과가티 個人 個人의 浪漫主義가 잇다는것을 是認하지안는다고 하드라도 『프리체』의

指摘한바와가티 浪漫의두가지型을 是認한다면 이 『들』의 로맨티시즘은 未來의憧憬 그것과 合致하는것은 아니엇다! 勿論 『들』의 作者는 이自然의 情熱을 『동무들과 곱방메 에서만나고 눈놀기워 거리를 돌아치다 붓들 리고 뛰다 잡히우고 쫏기우고— 하엿 會때의 열정이나 지금 『들』을 사랑하는열정이나 일반이다』라고 말하고잇스며 또그것을 證明하기 爲하야 作者는 『동무』를 登場식히고잇는 事實을 理解할수잇다 하나 作者가 아무리 辯明함에 不拘하고 그두가지 情熱은 여기에表現된 限에서는 決코同一한情熱이아니며 따라서『동무』의 行動도 그自體의 情熱과 合致되지안코 遊離된것으로 되여잇는것을 否認할수업는것이엇다

問題를 中間에서 飛躍식혀서 잠간『文海叢』(詩)(中央)을보면 林和氏는 그詩가운데서 作家自身의 情熱로서 그리 高揚되여잇지아니한 情熱을 『가슴의『로맨티시즘』이 물결치고잇다는 『一行의文句』에 依하야 偉大한浪漫精神까지 飛躍하려고 努力하고잇스나 나는 그 一行의새다른音調가 도리혀詩의분위기와調和를 破壞하엿슬지언정 그것으로 그詩가 浪漫의 精神의詩로되여잇다고는 理解하기어렵엇다

學藝小欄

九人會同人誌 『詩와小說』創刊

九人會에서는 그同人雜誌인『詩와小說』을 月刊으로 創刊해서 方今 編輯中인데 發行所는 市內西大門通 彰文社이고 頒價는 十錢이라고한다。

人間學第二序論
人間의存在에對하야

金基錫

『生』의 世界란어떤것일가。『生』의 世界는 먼저 한개의存在의 世界이다。『生』은 存在의 한 개의 自己限定에 지나지안는다 그러나 『生』은 단순히 存在에 그치고마는것은 아니다。단순한 存在에 그치고 마는것인한에서 그것은 그대로 存在이요 『生』인 存在는 아니다。『生』인 存在는 자기를 存在로限定하는 性格과 함께 자기를 『生인』으로限定하는 새로운 性格을 가지지안허서는안된다。이새로운 性格의槪念을 우리들은 生長性의槪念, 自由性 創造性의

槪念에서찾는다。『生』의世界는 生長性의世界가 아니면안된다。『生』의 世界는自由性의世界、創造性의 世界가아니면안된다。『生』을가지는 存在는 時間性에잇서서 자기를存在로 限定하면서、生長性에잇서서 自由性및創造性에잇서서 자기를 『生』인存在、『生』을 가지는存在로限定한다。生長性의 世界는 그 자신한개의 顚滅性의 世界다。진실한生長의世界는 生長即顚滅의 世界가 아니면안된다。

『生』의秩序는死의秩序다。『生』의 原理는 死의原理에잇서서理解되지안허서는 안된다。『生』은 진실한『生』이 되기위하야 그속에 死를가진다。生長의 世界는 진실한 生長의世界가 되기위하야 그속에 顚滅의世界를가진다 顚滅업는 生長의世界가 잇다고하랴。그때 生長의世界는자기를 否定하는世界를 가지지못한다。자기를 否定하는 世界를 가지지못하는 한에서 자기를 진실한 한개의 世界로限定할길이업는것이다。

사람들은 久遠한『生』의 世界를 憧憬한다。死를모르는『生』의 世界를 憧憬한다。그러나 死를모르는『生』의 世界란것이잇슬것인가。顚滅을 隔한 生長의 世界란것이잇슬것인가。『生』은 死를 通하야 자기를死의

否定인『生』으로限定한다 『生』은 死와얽매이면서 비로소 『生』인것이。死를떠나서『生』은자기를『生』으로마늘길이업는것이다。『生』의世界로부터 死의世界가 사려진다고하랴。그리고『生』世界가 死를모르는『生』의世界로 남어잇게된다고하랴。그때 사람들은 이久遠한『生』의 世界를 다루어 憂歡할는지도모른다。그러나 이어른바 久遠한『生』의世界는 死를모르는 世界가되면서 아울러『生』을 모르는 世界가 되고마는것이다。久遠한『生』의 世界의 槪念은『生』속에서 死를 외오지못하는이들만이 부르는 허된 노래 인것이다。그런데『生』속에서 死를 외오지못하고 진실한『生』의 意味를외울수는 업는것이다。

創作의方法論에抗하야 ⑨

李甲基

藝作에向한 藝家의 파렛트의 調和되는色에 唯物辨證法이 混合의方程式이 될수잇슬것 갓지도아니하며 創作하는 作家의 奔放한表象活動이『쏘시알리스틱,레아리즘』의公式에 依하야 決定될것가시도안타 萬一 그러한것이 可能하다면 다만 우리가 맑스主義文學理論에依하야 일어버렷던것과가튼『藝術의喪失』이라는 쓰라린經驗을 再生産함에不過한것이아닐까?

文學과 政治가 가튼 人類文化에 上層構造인以上 文學이 全然 이러한構造의밧게 超越하야 自身의 獨自性만으로 發展한다고 主張하는것은아니나 그相互間의 關聯關係의 微妙한 諸相을 一律的으로 科學的諸法則에 還元식힘은 不可한일이아닌가한다 文學이 社會的 諸關係에依하야 그影響을 밧는것으로서 文學史를 文化史로 認同하려함은 橫暴한 文學解釋者 主張함에지나지아니하는것이다。 다만 文學의 正當한 發展을 爲하야 또는 文學危機의 現狀을 救하기爲하야서는 이러한모든 誤謬와 偏見을 除去하고文學에對한 새로운 具體的인 認識이 잇서야할것이다

위선 한개의 길만이 明確하다。 그것은 맑스主義文學에 依하야 이땅의 모든進步的作家의머리에 染着되여잇는 創作上의 方法論的 諸偏向에 對한 決定的인 批判이 必要하며 따라서 上述한바와가튼 藝術的眞實의 非論理性에對하야 正當한 認識이 要請되는것이다

『어든것은 이데오로기ー요 이른것은藝術이다』

라고한 朴英熙氏의 말은 그것이 한개의 壓縮된 表現이긴하나 여러가지誤解를살 可能性을가젓스나 우리가한번 過去의 푸로레타리아文學의 歷史를回顧할때 이말에對하야 새로운吟味가 必要하여지지아니할까?

文學에對한 이데오로기ー의問題는 結局一定한 이데오로기ー를 살니기爲한 文學의 犧牲에서가아니고 文學、그것을 爲한 世界觀의 必要에서 決定되는것이아닌가?

萬一 우리가 이러한 산文學의 創造를 要求한다면 그것은 文學創作의 圖式的方法論에서勇敢하게 訣別하는데서 出發하여야할것이다 이곳에서 비로소文學은 그本來的 鄕土에로 도라갈수잇다 (끗)

戲曲 春香傳 (11)

【劇硏上演】 柳致眞 脚色

許봉사 (算筒을 눈우에 놉히들고 설설 내흔들면서 축사를 이르는대) 천하언재(天何言哉)시며 지하언재(地何言哉)시리오마는 고지즉응(叩之則應)하나니 감이순통(感而順通)감이순통하소서。 부대인자 (夫大人者)는 여천지합기덕 (與天地合其德)하며 여일월합기명 (與日月合其明)하며 여사시합기서 (與四時合其序)하며 여귀신합기길흉(與鬼神合其吉凶)하나니 태세을축오월갑자삭초이일갑인오시(太歲乙丑五月甲子朔 初二日 甲寅午時) 해동조선전라좌도남원부 봉수면 강선동거(海東朝鮮全羅左道南原府鳳首面降仙洞居) 임자생성춘향(壬子生成春香) 옥중에 가치어 해포를 신고하오니 어느날노이며 경성삼청동 리몽룡(京城三淸洞李夢龍)을 어느날 맛나며사생길흉(死生吉凶)이 어떠하올는지 복걸재선생(伏乞諸先生)은 물비소시(勿祕昭示) 물비소시……(하고 산통을 왈각왈각 흔들어서 것구로 잡아 산大를 빼어세어보더니 許봉사 大笑한다) 허허허……점괘(占卦)잘 낫다。관귀(官鬼)가 공(空)을 마젓스니 관귀공(官鬼空)은 송사정(訟事停)이라 금명양간 노일것이오 경성 리서방으로하야도 청룡관귀역마(靑龍官鬼驛馬)에 정록(正祿)을 띄엇스니 허허! 대단 무서운 벼살이로고나。 그리고호출인왕산(虎出仁旺山)하고 야도한강수(夜渡漢江水)를 건넛스니 내려오든 거동 분명하다。

春香 정말입니까?

許봉사 정말이고 여부가잇나。내정은 신점(神占)이니 허되히 알지 마러라。

春香 말슴과 가튼진데 작히나 조흐리오마는 그것다 몽랑하신 소리갯지오。

許봉사 그게 무슨 말이냥 못미겟거든 우리 고를 맷고 내기하자。

春香 신수점이 그럴진대 아까 그꿈은 웬꿈이오?

許봉사 그러면 그해몽도 해주마。 옥창아페편 앵도화가 떠러젓댔지?……올치 화락(花落)하니 능성실(能成實)이오、꼿치 떠러젓스니 능히 열매를 매즐것이오、그리고 거울이 깨여젓겟다。 경파(鏡破)하니 긔무성(豈無聲)가? 거울이 깨젓스니 엇지 소리가업겟느냐? 문상(門上)에 허수인(虛偶人)하니、문우에 허수아비가 달렷스니 인인(人人)이 개앙시(皆仰視)라。사람이 모도 우르러 볼것이라。그리고 마즈막으로 옥당에 가마귀 안저 가옥 가옥 울엇스니 『가자』는 아름다울가(佳)자옷자는 집옥(屋)자ー허 이일이 웬일이냐? 이거 참 큰경사 낫고나! 이건 점점히 오늘밤 오경(五更)에 귀한사람을 맛나겟고나ー

春香 귀한사람이라니요? 서울 가신 도령님말슴입니까?

許봉사 글세、그저 오늘밤오경시에 귀한사람을 맛나서 조흔일 무수하고 오늘 일진(日辰)이 갑인(甲寅)이라 내일유시(酉時)에 가마 탈일이 잇슬터이니 조금도 걱정마러라 이건 바로 큰경사다。

春香 허허허……허봉사님、그게무슨 농담이오? 이번은날이새면 장하지혼(杖下之魂)이 될녀이오。이런녀에게 무슨가마를 탈일이잇겟소。 긋해야 생여나 어더타겟지오。

許봉사 내말이 거즛말이가 고름맷고내기하자니까그러네。영라 업슬터이니두고만보아라。

春香 (가벼히웃스며 정녕히 그러타면 수고를 갑소리다 그

許봉사 이애야 근래에는 명색업는 갑루 만는니랑 내점이 맛거든랑 내게 그런갑두나 하나 씨어다고。

春香 네。편안히 가시오。

許봉사 아예 염려말고 수일만 기더라。

(許봉사退場。나가면서 또問數를오인다。門間使令獄門을 잠근다)

春香 (혼자서)……이일이 점괘가튼진대 무슨 한이 잇스리오마는……다 쓸데업는 수작이다

(門間使令 하품하고 獄司丁房에가서 도올내여세여본다。 멀리서 파루치는 소리 뎅뎅 울린다

間

香丹이燈籠을들고 月梅와함께서고、夢龍이 뒤를 따라 登場한다。

門間使令 사람오는 기척을알고 房에서 뛰어나간다。)

◆風景……吉鎭燮小品展에서—

新想 不老長生法批判 (中)

鄭槿陽

人間이 老衰하는것은 大腸內에 머무러잇는 糞便의 腐敗에 依한 自家中毒이 原因이니 이 腐敗를 막기爲하야는 乳酸菌에 依하야 乳酸醱酵를 식혀야한다고 저 **有名**한 細菌學者 메츠니코프는 提唱하엿다。酸性乳는 乳酸醱酵를 助長하며 腐敗를 막는다하야 시디신 酸性乳를 使用키 餘暇잇는때도 잇섯스나 어느듯 이저버리고 말게되엿다 이러틋한 效果를 볼수업섯든것이다。

호르몬에依한 回生乃至 不老法은 現代 가장 寵愛를 밧고 잇는것임은 임이 말한바이나 이것이 太古로부터 綿綿히 끄칠줄을 모르고 今日에와 科學的根據 밋헤서게 되엿다고 하야 굉장한 勢力을 가지게되엿다。그 效力아란 勿論疑心바더야 할點이 太半인데도不拘하고 너나내나 性慾본을 憧憬하는것은 그것이 直接性과 서로 關聯하여잇다는點이겟다。

果然그러하다。사람들이 回生하겟다 不老長生해야겟다하는裡面의 理由는 全혀性的生活을기리기리 持續하고십다 어디케좀하야 性生活을 더 좀더享樂할수엇을가하는데 숨어잇는것이다 女子를 私有財産으로생각하고、얼마든지 가러뫼수엇다고 생각하든때에는 어려한 實動은 **男子** 에 限하야볼수잇섯든것이요 女子에잇서서는全혀볼수업섯든것이다。이런 思想이 그자최를 감추지 못한 現代에 잇서서도 問題되는것은 男子側이요、女子側은 아니다。

그들 豪衣豪食하고 할일업는 무리들은 오로지 本能的인 自己의 低級한 慾望을 채우기 爲하야서만 이러한 術法을 要求하얏든것이다。어떤 理想을 爲하야 或은 自己의 眞實한 事業을 爲하야 命의 짧음과 늙음을 愛惜해함이 아니요 단지 一個人의 享樂을 爲하야 될수잇는데까지 젊어지이다고 바랫든것이다。

讀者文藝室

▲朝鮮日報에 連載되엿든 萬海韓龍雲氏의 長篇小說『黑風』을 最初回부터 最終回二百四十三回까지의 金能紹介까지 合처 한회도 빼이지안코 一一히 오려서 附送하여 주시면 謝禮를 進呈하겟습니다。
全北金堤邑新谷里 申昌均

▲京城의自働車學校中에어느學校가信用잇고 親切하고가장 敎育機關의設備가조코歷史가오래지요 또는實任料는거진업시免許맛도록 食事外工夫實習까지식혀주는지요 費用은얼마나 되는지요?알니여 주십시요? (中和車生)

▲求貸家。傳貰나 月貰로 房二間 마루한間 부억잇는 南向집한채를求함
市內仁義洞一一九ノ一觀山亭人

▲求貸房。女學生三名 寄宿할집이나 自炊할房을 求하오니 至急히알려주시오

▲平壤하모니카밴드의 事務所와 同밴드指揮者인 李貞雄氏의 住所를 아시는분이 계시면 곳 下記住所로 通知하여 주십소바랍니다。
京城府芳山町四의八 金文星

▲利原게신新景里兒安家하신다가 모이보내주섯틀바더보고 돈과편지를하엿더니 도로왓스니 답답합니다 옥에서엽마나 苦痛을맛으십니가 누구방에게신다는 住所를좀 바로 分明히적어보내주시요 아우景洙마나 위망하십니가 速히番地와 누구方에게신다는것을 알녀주시요
·京城業團洞九九忠北旅館李俊永

▲生은 最近에 萬國古今郵票 蒐集을 始作하엿사오니 蒐集方法及 左記事項을 下敎하여 주서옵기바라나이다
一、趣味之會의住所
一、萬國古今郵票販賣所
一、現在使用中의 外國郵票蒐集方法
金泉 郵票蒐集生

新刊紹介

▲債券之日本 三月號 大阪市東區內本町橋詰町 債券之日本社發行 振替大阪一〇五八六番 定價二十錢

▲月刊野談 三月號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癸酉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二一八二一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三千里 四月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三千里社發行 振替京城一九四九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別冊附錄東京軍隊事變畵報

▲藤井療法 三月號 東京市麴町區永田町一丁目三 藤井療法本院內 藤井會發行 振替東京七一〇三九番 定價二十五錢

▲監理會報 三月號 京城府蛤洞三一 基督敎朝鮮監理會總理院發行 振替京城一八三七二番 定價一部五錢

▲朝鮮商工獎勵館報 二十六號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內 朝鮮商品調査硏究會發行 定價十錢

▲예수 二、三月合倂號 平壤府下水口里九〇 예수교회中央宣道院發行 振替京城一二三六五番 定價十二錢(送料並)

▲信仰 心田開發講座第二講 京城府樓下洞七七ノ四 心田舍發行 振替京城六一一二番 定價十錢

▲日月時報 第六號 京城府三角町六七 日月時報社發行 振替京城一二〇三九番 定價三十錢

▲講臺寶庫 金正賢牧師著第一輯再版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朝鮮耶穌敎書會發行 定價布衣一圓 紙衣八〇錢 販賣所京城府孔德町二二의十二 講臺社 振替京城一九七四五番

▲運輸界 三月號 京城府花園町七九 運輸通信社發行 振替京城二〇九七六番 定價五十錢

▲基督敎報 第四十七號(週刊)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發行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科學雜錄

『멘델』의標本이 『펜실바니아』에

『필라델피아』(米國通信)『멘델의法則』으로 著名한 『크레골』『멘델』師는 카트리-敎의 聖職者로『체코슬로바키』아의『골노』에잇는『모ー카스링』派의修道院에서 修道生活을보내엿든데 歷史的實驗에 使用한白粉花의 標本이大槪가 一世紀를 經過한것에도 不拘하고 조금도損傷하지안코 今回『펜실바니아』大學에 寄贈되엿다 花의는 八十年前의 花葉이 모다 實驗當時의 그대로 保存하여잇는우에『멘델』師의 署名까지 表示되여잇는 貴重한資料이다。『펜실바니아』大學敎授 외인산엘、펠베르가ー博士가最近 同修道院을訪問하야 乘誕한百年二大學을 爲하야 바든것이라한다

腸이弱한분은 特히注意!

過食이나冷이原因되야 慢性下痢를惹起하는분이만타

腸은榮養機能의根幹이다。모든榮養은腸管으로부터吸收되야、全身에 配布됨으로써、腸은人體의廚房이라고볼수잇다。이곳이傷하면、밥먹지못할것은勿論이고、그런데찰때에는 體內의機能를旺盛하게하는必要上

多食하게되야

自己의嗜好에偏重하야過食함으로 이廚房을傷하기쉽다。元來腸의消化는、肝臟、腎臟、膵臟等의腺으로分泌하는여러가지의消化酵素와호르몬의作用에依하는바、過食하든지、또는偏食하야特히엇던成分만히攝取하게되면、그것을消化하는酵素나、호르몬이不足되야、分泌하는機能은過勞가되야衰退되는것이다。또는寒氣를直接밧게되는害는、冷이생기게됩니다。冷은腸部의濃熱이奪取됨으로血液이充分하게胃腸에닷지못하며、消化酵素의分泌이衰하야、蠕動도變調가되야오온다。더욱히、寒冷을생기는刺戟도加重되야、粘膜에가다르를이르켜、機能을障害함으로써食物은不消化그대로排泄되야下痢를이르킨다。그런데過食과偏食、冷等을連發하야治療를느치게되면下痢는저연慢性이되며、腸管이損傷되야

榮養分의吸收가

不可能케되며、抵抗力이심히衰한다。모든病은抵抗力이衰할時에생기는것은말할것도업는일이고、特히무서운結核이慢性下痢를續發하는例는實로만타。그러다해서、下痢를中止식히려고止瀉劑를使用하는것은좀考慮할바이다。止瀉劑의多部分은腸管分泌을鎭痺식혀、蠕動이나水分의神經을抑制하려하는藥인바、그로써의、機能에두려운惡刺戟을招來키쉽다 어느편으로나止瀉劑가튼一時的의것이아니다。가장原因에遡及하야、偏食過食이나、冷等을防止함과同時에、肝臟、胃臟、膵臟等의機能에活力을주며、酵素와호르몬의、分泌을促進식히는方法을取치안코면안된다。그에는酵素療法으로써、各方面에活用되는活性헤ー헤菌劑『錠剤わかもと』의 服用이가장簡便하며、더욱히有效한方法일것이다。『錠剤わかもと』는十數種의活性酵素와

廣汎한榮養素

와의綜合으로부터된것인바、酵素中에는 차스타ー제、마르타ー제、리파ー제、푸로테아ー제等의豊富한消化酵素와、此等의作用을補助하는 호르몬、삐타민等을만히含有하고잇슴으로써、其消化의腸管의消化吸收作用을根本的으로活潑케하며、이것을健全에로恢復식힐수가잇다。더욱이藥의含有되고잇는榮養素는脂肪、蛋白、含水炭素、無機物、삐타민等의各種類에널니含有되야오직機能의障害를除去하며 下痢를除할뿐아니라、偏食의害를匡正하며、抵抗力의低下를防止하며、疾患을未然에防止하는것이다。

結核과肋膜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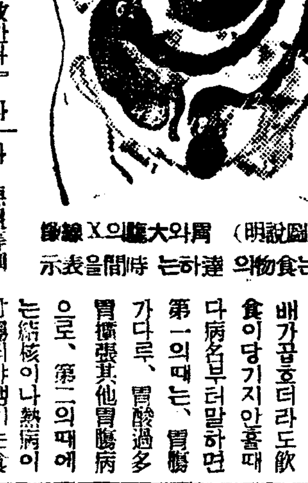
肋膜炎에는、肺炎의經過途中에서發生함이 多하며、靑年婦人에도 곳잘생기는것이지만、九十%까지는結核性이라고한다。結核性肋膜炎은、結核菌의結核病巢에서 侵入하는것이니、結核菌이淋巴液中에侵入해서 肋膜을 侵害하는것이니、이에病毒을짓기때문에發病되는다。治療로서는、全身細胞에注力을주며、白血球의喰菌作用을돕는活性酵素와、貴重한榮養素를倂含한『錠剤わかもと』의服用이、一段進步된療法으로實用되고잇다。

食慾不振을이르키는 두가지의關係
—食慾은健康의바로메ー터ー—

『食慾이조혼病者는救한다』라고、엣날부터傳해오는바와가티、가든病에걸니엿더라도、食慾의조흔편은要勵도안코

餘病도

이르키지안코速히恢復되는바、食慾이업는患者는、이反對로榮養이不足하야、病狀을惡化식히는때가가장만타。이食慾不振에는、第一은 消化器에障害가잇고、食物이胃中에停滯하야空腹이일어지지안흘時、第二는食慾을이르키는中樞에障害가되야배가곱흐더라도飮食이당기지안흘때다病名부터말하면第一의때는、胃腸가다르、胃酸過多胃擴張其他胃腸病으로、第二의때에는結核이나熱病이나 惡阻等에 付隨되야생기는食慾不振이다×



(上圖說明) 周와大腸의X線寫眞 數字는食物의 達하는 時間을表示

그어느것이나、原因이잇는以上그것을除之치안코서는 食慾은일지못하는것이다、單刺戟劑나消化劑에만依賴하여서는、到底히充分한效果는期待키어렵다。例하면消化不良일때、一時的抑壓이면消化劑를給與하야 어느程度까지消化는 助長되지만、慢性일때、病이길흔데잇슬때

效果가

업는것은 當然하렴、그밧外라 消化劑는 連用하면 效力이업다고하는缺點도잇는것이다。또는 結核으로食慾이업슬때에는 結核菌의 産出毒素가 中樞를刺戟식히기때문이며、그毒素를除去키外에는 消化劑나 刺戟劑로서는 治療되지안는것이다。그와가튼 食慾不振으로 苦惱하는患者는 食養法을이에紹介하기로 한다。그것은最近、治療界의 識見로서、好評을 博得하는『錠剤わかもと』의 服用이다。『錠剤わかもと』가 食慾不振에와 效果가잇나하면、그中에는生活組成의活性酵素가含有되야、消化機能을 活潑케하며、自然히空腹感을 이르킴을 除去하며、胃腸障害를 이르킴으로써이다。더욱이것이 結核이나 熱病이나 惡阻等에 依한食慾不振에 까지 效가잇는것은『錠剤わかもと』는中에、누구리이酸、구리코ー겐과가든 體內의殺菌解毒作用을營하는

成分이

잇고、또는 細菌에 依한惡刺戟을 除去하며、中樞神經을 健全케하는作用이잇음으로써、世界의有名한 醫學者가、이藥이 主成分인 헤ー웨菌의作用을稱讚하야、『眞正한食慾素』라고한 事實은、이藥의效果를證明함에充分한것이다 더욱이『錠剤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際、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三百錠入、千錠入二圓一日四五錢에 不過한 廉價로 發賣하고잇는바、近來에그 聲價를利用하야、效果에 疑問되는 類似品(酵母、빼ー루ー酵母劑라고 하지만 類似品이다)를 勸하는藥店도잇슴으로 注意하라。

療養實話

食慾이增進、體重도增加
지금은튼튼한신체
(埼玉) 武內敬太郎

저는農家의一靑年으로서、年齡은二十一歲입니다。나의胃腸病은、十八歲때부터始作된바、胃腸이弱하기때문에食慾은나지안코、조곰조흔것을먹으면下痢를하고、먹은것도잘삭지안코、前까지骨과皮膚만의瘦瘠한 自體엿지만、胃×이나胃×、其他모ー든胃腸藥을試한바、灌腸療法、絶食療法까지 하여지지만、胃腸病은낫지안엇다。新聞廣告에서『錠剤わかもと』에마음이솔리게되는는、사서服用한것이、昨年正月이엇서다그러데、그中效果가곳잇니고、胃腸의機能이良好하야、食慾은不振되는、더운七、八月頃에食慾은旺盛하고、여름여위도안코、食慾元氣가나서여위여九貫七百匁뿐이든 身體는只今에는十四貫이나되고身體가되야、每日元氣잇게活動을만하게되엿다。

無代進呈

여러가지興味잇는 內容과硏究、育兒의知識을滿載한月刊誌『榮養と育兒』를全國數百의著名藥店에서無代進呈하고잇슴으로 近處藥店에請求하십시요

藥店에 업는곳에서는 葉書로 『榮養と育兒』를請求하시면 드립니다 住所는 東京芝公園『榮養と育兒社』에 照會하십시요。

黃昏 【41】

韓雪野 作 安夕影 畫

그들의문답(七)

려순은 어쩐지 준식에게 대하야 미안한 생각이 들엇다。

사무실과 공장의 거리가 갓갑고도 먼것가티 자긔들의 사이도 그처럼 되어가는것 가텃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공장에가서 기술을 배우는것이 오히려 낫겟다는것을 말하엿다

『사실 오갑 하나라도 제손으로 만드는걸 벳스면 조켓서요』

『글세올시다。노상 낫볼긴 업는 일이지만 어듸 그러케 되겟서요?』

『될수는 잇서요……아니 사장과 직접 말할게 아니라 김경재씨와 말하면 될거예요』

『그전 사장아들 말이지요?』

『네, 퍽 조흔 사람이예요。남의 하정도 잘알어주고 또 공장가튼데를 다니는걸, 낫부게는 커녕, 되려 부럽게 생각하고 잇는모양이애요。저이가튼 사람은 죽어도 긔구가 돌지만 로동자가 업서서는……참 준식씨와 꼭 뜻이 마즐거애요。그전에 준식씨가 제게 준책을 보구는 썩 조흔 책이라구요……밤낫 공부만 허구잇서요』

하는 려순의 말을 들으며 준식은 까닭업시 인테리에게대한 반감이 이러낫다——

『하하하……책이야 지식이나 잇지……』

『아니예요。조금도 아는체 하지안허요。퍽 겸손하고 또 뜻이 고상해요。그리구 부자 자식뒤라구는 꿈에도 볼수업서요』

『나도 말만은 들엇서요。생각만은 조앗든 모양이드군요。하지만 인제 때가 박겨서 그것만 가지구는 안될걸요』

하는 준식의말에는 여러가지의 의미가 잇섯스나 려순은 그것을 리해하지 못한다。

『좌우간 한번 만나 보서요그만한사람도 흔치안흘것가태요』

『글세요。혹 만나게 될지도모르지요。필요잇는때면 만나게될거고……』

『애기 해보면 뜻이 마즐거에요』

『우리가튼 사람과도?』

하는 준식의말에는 다분히 빗끈는 의미가 잇다。

『그럼요……』

『정말 그러라면 제가 먼저차자 와야지요。하하하……』

『준식씨가 먼첨 차자가면 어때요?』

『하지만 내가 먼저 차자가야 한다는 법은 업스니까요。상놈이 양반 차자가는 때가잇다면 양반이 상놈 차자가는 때도잇서야죠。하니까, 인제우리도 남차자 오는걸 바다야지 안허요?』

『서루 그러다가는 만날 날이 업겟서요?』

『그러나 뒤떡기는것두 세상리치의 하나니까요……그도 상당한 지식청년이라 자존심이 잇갯지만, 그래도 내게 먼저 오는 날이 잇슬지 아나요?』

『그럼 두고 보지요。호호호……』

『두고 보기보다……한준식씨 먼저 차자가보시우……하고 그드러 말해보시죠。하하하』

『그러다가 안오면 준식씨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지요』

『망신될거 업지요。못오는 제가 못난거지요』

『못오는건가요? 안오는거지』

『우리가튼사람을 조아한다면서 안오니까 밉서 가짜 조아하는거지 뭐예요?』

『그럼 왜 준식씨는 안가요?』

『난 글세 필요 잇스면 간다니까요。그러치 안흔 경우에는 대체로 그가 날 차자오는게 지금의 원측이라니까요』

『팬니 그러지마시우……사장이 어떠케 그를 신임하는데 그리시우 호호호……』

『하하하……『구비』가 되단말이지요 그야 한다는 사위될사람이니까 사장도 그만 청이야 들론 들어줄테지만……』

하는 준식의말을 듯고보니, 자기는 무심코한말이나 어쨋든 잘못간것 가태서 려순은

『아무리 사위라도 들을말이잇고 안들을말이 잇지요』

하고 사과하드시 웃는다。

『현옥이가 외딸 아니우。하니까 경재는 이를테면 사위겸아들이니 오만가지 청인들 안들어 주겟소 회사엔 안들어온다구 헌다지만 인제 곳 결혼한다니까 그러면 그게 훌륭한 취직이아니우。백만장자의 사위겸아들이면 그만이지요』

『훌륭한 취직이요? 호호호』

려순은 태연히 우섯스나 마음은 옷지안헛다。그래서 슬며시 화제를 돌렷다——

『난 그래도 남은 직공을 내보내고 새직공을 넛는 때에 그와 부탁해서 기술을 취직식히라는데요』

그러자 준식은 단호히 끈어 말한다。

『못씀니다!』

※曆※ 三月廿一日(土) 二月建辛卯小(二十八日) 壬寅·金·胃·閉
●驚六日(第十三日)
●春分二十一日(舊二十八日)

各學校入學試驗問題

京城第二高等普通學校(續)

國語科(乙) 第二日分

一、次の——のひいてある言葉に讀假名をつけなさい

端正。濱田。氣短。幸運。野遊。苦行。頭華。不振。探る 古の名殘を留むるのみ。

(　)が目もはるかに連なつてゐます

悉く灌漑の用に當てたりき

二、次の文中——のひいてある片假名を漢字で括弧內に書入れなさい

ヤク(　)ホウエイ(　)のタマモア(　)である。

カンシヤ(　)の念を起す。

其のサウクワン(　)賞にヒツゼテ(　)にテ(　)くし難く候。

クワイグワ(　)ジヤシン(　)等と共に之を インサツ(　)部に送る

帝國ギクワイ(　)の ケフサン(　)を經なければならぬ。

三、次の文を讀んで、後の(6)までの問に答へなさい。(1)から

最前の中津から南へ三里、激流岩をかむ山國川を・右に見て、川沿の道をたどつて行くと、左手の山は次第に頭上に せまり遂には路の前面に 突立つて人の行手をさへぎつてしまふ。これからが世に恐しい青のくさり戸である。享保の頃の 事であつた。此の青のくさり戸にさしかゝる手前、路をさへぎつて立つ岩前に、毎日毎日根氣よくのみを振るつて、餘念なく穴を掘つてゐる僧があつた。

幾年かたつうちに、穴はだんだん奥行を加へて、既に何十間といふ深さに達した。

此の洞穴と、十年一日の如く默默としてのみの手を休めない僧の 根氣とを見た村の人人は、今更のやうに 驚いた。出來る氣づかひはないと見くびつてゐた岩山の掘拔もこれではどうにか出來さうである。一念こつた不斷の努力は恐しいものであると思ひつくと、此の見る影もない老僧の姿が、急に偉いものに見え出した。そこで人人はいつそ我我も出來るだけ 此の仕事を助けて、一日も早く洞門を開通し、老僧の命のあるうちに其の志を遂げさせる共とに、我我もあのくさり戸を 渡る難儀をのがれようではないかと相談して其の 方法をも取りきめた。

其の後は老僧と共に 洞穴の中でのみを振るふ者もあり、費用を喜捨する者もあつて、仕事は大いにはかどつて來た。しかし人は 物にうみ易い。かうして幾年か過ぎうちに、村の人人は此の仕事にあきて來た。手傳をする者が一人へり二人へりしてはては 又村人全體が此の老僧から離れるやうになつた。

けれども老僧は更にとんぢやくしない。彼の初一念は年と共に益益固く、時には 夜半までも薄暗い 燈を便りに、經文をとなへながら 一心にのみを振るふことさへあつた。

老僧の終始一貫した根氣は、遂に人人を恥ぢさせたものか、仕事を助ける者がまたぼつぼつと出來て來た。かうして、老僧が始めてのみを 此の絶壁に下してからちやうど三十年目に、彼が一生をささげた 大工事が見事に出來上つた。洞門の長さは實に百餘間に及び、川に面した方には 處處にあかり取りの窓さへうがつてある。

(1) 老僧の姿が急に偉いものに見え出したのは、なぜですか
答

(2) 十行目に『其の方法をも取りきめた。』とありますが方法を取りきめてから村人はどんなことをしましたか。
答

(3) 村人全體が此の老僧から離れるやうになつたのは、なぜでせうか。
答

(4)『老僧は 更にとんぢやくしない。』とは、何にとんぢやくしないのですか。
答

(5) 十七行目の『かうして』とは、どうした事を いふのですか。
答

(6) 次の言葉のわけを書きなさい。
イ、激流岩をかむ。答
ロ、終始一貫した根氣。答
ハ、喜捨。答
ニ、初一念。答

算術科 第二日分

(1) 次ノ式ヲ計算セヨ。
$\{(4.3-2.06)\times7+48\div15\div(136-4.16\}$
(運算ト答) 答

(2) 次ノ式ヲ計算セヨ。
$0.835\div3\frac{2}{3}+4\frac{7}{12}\times2\frac{3}{11}-10\frac{5}{24}$
(運算ト答) 答

(3) 內法底面ガ10糎平方ノ角壜ニ15糎ノ高サニ水ヲ入レタノガアル、ソノ中ニ半徑ガ5糎ノ鐵球ヲ沈メルト水ノ高サハ何糎トナルカ。
(式ト運算ト答) 答

(4) 甲ノ體重ハ乙ノヨリハ6瓩輕クテ乙ノ體重ノ$\frac{17}{20}$デアル、甲乙各ノ體重ハ幾瓩カ。
(式ト運算ト答) 答

(5) 下關釜山間連絡船ハ下關發午前10時30分ノニ乘ルトソノ日ノ6時ニ釜山ヘ着ク、又釜山發午前11時30分ノニ乘ルトソノ日ノ午後7時30分ニ下關ヘ着ク、コノ兩船ガ出會フ時刻ハ何時カ。(分マデ出シ……)
(式ト運算ト答) 答

(6) 甲乙2人ガ同ジ金額ヲ出シテ田地1.1a2ha ヲ1ニツキ25圓デ買ツテコレヲ甲ガ3、乙ガ5ノ割合ニ分ケタ、乙ハ甲ニ幾ラノ金ヲヤラネバナラヌカ。
(式ト運算ト答) 答

(7) 或學校ノ本年ノ入學志願者ハ992人デアツテ、モシコレヨリモ42人少イトキハ昨年ノ丁度25%增ニ當ルトイフ、昨年ノ志願者ハ何人デアツタカ。
(式ト運算ト答) 答

(8) 朝鮮ノ所得稅率ハ課稅金額1500圓ニ對シテハ7圓40錢デ1500圓ヲ超エ2000圓マデハ 1500圓ヲ超エタ部分ニ對シテハ $\frac{1.5}{100}$ デアル、課稅金額1860圓ニ對スル所得稅ハ何程アルカ、
(式ト運算ト答) 答

▲訂正＝昨日第四欄以下는 第二高普인데 校名이 漏落되얏기訂正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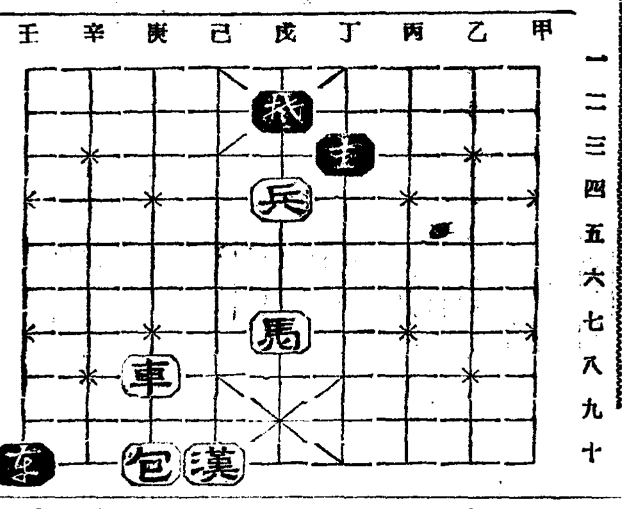
將棋名手對手局譜 (十五)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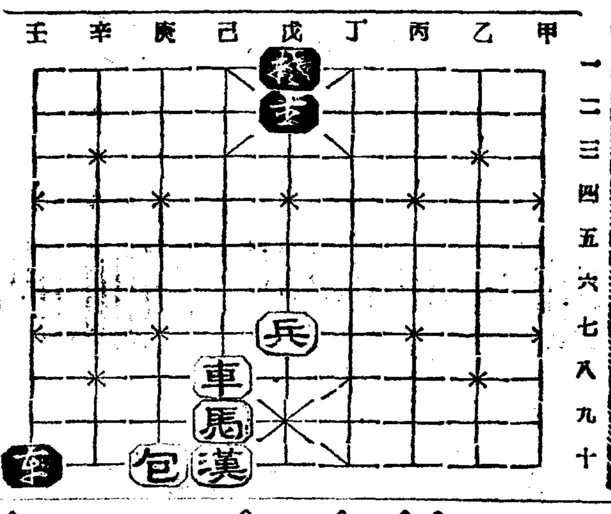
漢先手一兵 李在鳳 對 金漢榮

◀終局圖▶

己六車—庚六
戊一將—丁一
戊七兵—戊六
戊二將—戊三
戊六兵—戊五
丁一將—戊二
戊五兵—戊四
戊三將—丁三
己九馬—戊七
(漢 勝)



◀百四十手圖▶



라디오

二十日(金曜)

◇午後六時 노래공부(一) 一、봄오리 韓一信詞 玄濟明曲 二、개나리꼿 朴世永詞 同 複習時間 李俊興
◇同七時 世間事新人生發表
◇同七時三〇分 農業講座「園藝作物의播種」 金都珏
◇同八時(東) 파이프오르간 日本橋三越로부터中繼 一、봄의山울님…프리틀作曲 二、洪牙利舞曲…第五番 브람스作曲 三、人形의結婚式…브라운作曲 四、星條旗여永遠하라…수-자作曲
◇同八時三〇分 小春香歌外 一、小春香歌 二、平壤歌 三、달거리 四、노래가락 林牧丹 李竹葉
◇同九時 漢陰野談 「斗獄神由來」(第一席) 尹白南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노래공부
◇同七時三〇分(東) 어린이와 家庭의밤
◇同八時(東) 파이프오르간
◇同八時三〇分(東) 라듸오·드라마

二十一日(土曜)

◇午後〇時五〇分 倂唱 一、短歌 二、唱劇調 丁南希 鼓手 丁元燮
◇同一時二五分 獨唱과管絃樂(레코-드演奏)
◇同六時 노래공부(二) 一、봄오리 韓一信詞 玄濟明曲 二、개나리꼿 朴世永詞 玄濟明曲
◇同六時二五分 講演 春季皇靈祭에當하야 沈宜麟
◇同七時三〇分 音律 一、平調會相 二、吹打 三、與民樂 玄琴 金雨濃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 野談「靑鳥」(中) 申鼎言
◇同八時三〇分(東) 獨唱
第一部 一、世界의日本詩 스트라빈스키作曲 二、자장가 그라차니노프作曲 外一曲
第二部 一、바다저편 北原白秋作詞 山田耕作作曲
第三部 一、보리라직의노래 外二曲 藤原義江 高木東六 피아노伴奏
◇同九時五分 歌詞 一、白鷗詞 二、漁夫歌 大笒 文山紅 文明仙 杖鼓 金永根 金一宇

第一放送

◇午前一一時(東) 彼岸會法要
◇午後〇時三〇分(東) 雅樂
◇同一時一〇分(名) 琵琶合奏
◇同一時四〇分(大) 義太夫
◇同二時二〇分(東) 映畫劇
◇同六時(東) 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
◇同七時三〇分 全鮮靑年라듸오雄辯大會
◇同八時三〇分(東) 獨唱
◇同九時五分(東) 歌謠曲

二十二日(日曜)

◇午後零時五〇分 놀량外 一、놀량 二、앞산타령 三、뒷산타령 李命山 李福吉 卓命萬 金泰運
◇同一時三〇分 輕音樂(레코-드演奏)
◇同六時 兒童劇 "卒業前날" 一景—朴興珉作及演出—
(配役) 玉禮……崔辰男 玉姬……朴今俊 어머니……安在淑 범……朴民化 其他……金民譜
◇同六時二〇分 어린이新聞 業橋童心會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人心과道心" 張 赫
◇同八時 流行歌 "라듸오放送開始日을當하야" 朝鮮放送協會理事 方台榮 一、나리는이슬비 二、님이여잘잇거라 三、먼동이러오다＝金駿泳作曲 四、順風에돗달고＝古賀政男作曲 五、못이즐꿈 六、빗나는靑春 江口夜詩作曲 伴奏 DK管絃團 姜弘植
◇同八時二五分 關山戎馬 一、關山戎馬 二、愁心歌 三、역금愁心歌 四、령변가 五、개성난봉가 金順紅 金蘭香
◇同八時四五分 라듸오、드라마『無料治病術』一場 —李無影 作—
(配役) 金生員……朴商德 黃氏……白銀姬 仁德……金一英 賢順……吳愛葉 아범……許 塡 醫師A……崔永秀 同B……孟晩植
出演 劇藝術研究會 效果 柳致眞 效果班
◇同九時三〇分 大東商業學校新入生發表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 唱劇調 一、短歌『不省嘆』 二、唱劇調『春香傳中』『碑石司』 宋萬甲 韓成俊 鼓手

第一放送

◇午後〇時五〇分 鄕土劇의午後
◇同六時(大) 이야기와音樂
◇同七時三〇分(東) 謠曲
◇午後八時二〇分(大) 漫才
◇同八時三〇分(東) 講談
◇同九時(東) 長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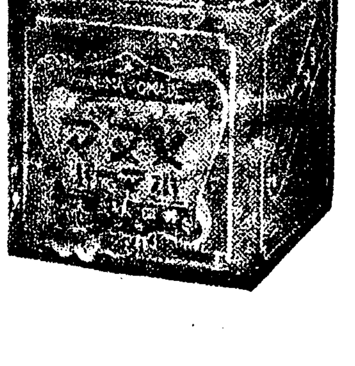
メヌマポマード

봄·明朗!

光澤이업는蓬髮이君을憂鬱하게보이게함에反하야이것은말할수업시明朗을나려내는メヌマ의整髮이다

끈적끈적안코·芳香妙美
번들번들안코·洗髮容易

定價 特大瓶 大瓶 小瓶 新小瓶



總發賣 井田東榮堂

MP—31

母乳代用에最適
使用法簡便

北海道ミルク

·세상 信用엇는 煉乳·

明治製菓株式會社

新製品宣傳大奉仕特賣

萬年筆同業者及共同購入の方へ大福音!今が御仕入の絶好期

特別奉仕 一口御註文高五圓以上に對し下記の通り御正味値より更に割引出精申候
五圓以上三分引・十圓以上五分引・十五圓以上七分引
廿圓以上一割引・卅圓以上一割五分引・五十圓以上二割引

A.A.A.

八十號・八十一號 高級一等純質エボナイト軸＝新案白金色十四金ペン S二號ペン付 (完全インキ止式) クローム二個輸入クリツプ付 小賣定價 一·三〇 一·八〇 卸特價 金六拾錢 金八拾錢
八十二號 S二號ペン付 (完全インキ止式) クローム二個輸入クリツプ付 小賣定價 一·五〇 卸特價 金七拾錢
八十四號・八十五號 S三號ペン付 軸直徑三分八厘 (完全インキ止式) クローム二個輸入クリツプ付 小賣定價 一·八〇 二·三〇 卸特價 金八拾錢 金壹圓也
八十七號 S三號ペン付 軸直徑四分 (自働吸入式) 本金厚張クリツプ ケイシヤ輸入 小賣定價 二·八〇 卸特價 金壹圓貳拾錢
九十一號 S三號ペン付 軸直徑三分八厘 (完全インキ止式) 本金厚張クリツプ ケイシヤ輸入 小賣定價 三·五〇 卸特價 金壹圓六拾錢
九十五號 Sプラチナ付 軸直徑四分 (完全インキ止式) 本金厚張クリツプ ウイシヤ輸入 小賣定價 四·〇〇 卸特價 金壹圓八拾錢

△類似粗製品あり

(右圖は皆實物大です)

取引要項 △御註文品不具合の節は交換又は返金御自由 △新型錄申込次第送呈

全額前金御註文の方は送料·切本舖で負擔致します、但し御正味値一円以下一本のみ見本御入用の節は送料十二錢加算の上御註文拂込願ひます 代金引換御註文の節は必ず三割以上內金御拂込願ひます【送料實費先方御負擔の事】御送金は振替口座御拂込が一番安全便利です、小爲替又は切手代用一割增しも可。

サンエイ本舖 東京市中野區宮園通三ノ一 合名會社 鈴木製作所 電話中野六一七五番 振替東京九九一八六番

エンイ高級萬年筆 A.A.A. マークに御注意の程を!

東洋劇場 西大門通 電光3三一番
次週豫告 二十三日부터二日間唱劇團第一回公演 二十六日부터喜劇座第一回公演
流行歌와漫談 朴英姬、康鴻根、與小玉、金鶴聲、專屬歌手 일리온레코드 李銀波、金壽動
爆笑劇 汽車時間이느저서 全一幕
◇悲劇 雪湖 編
出演……李東湖、朴孤松、朴貞玉、金愛順、羅龍兆、崔天擎、金松夫、許末麗、朴花順其外全員出演
第一幕白哥의집、二幕牧師의집、三幕牧師의집
戲曲 賣笑婦 三幕 (一名거룩한죽엄)
◇朴英鎬作
◇新舞臺所演脚本 前週連夜超滿員御禮
新舞臺公演……第二週…… 晝間一時夜間七時 三月二十日낮부터

第一劇場 鐘路四丁目 電光二五五番
여러분의 女軍艦隊
次週＝恐怖の四人、理想鄕の禿鷹
잼-스마레 카스링코로드 主演
大學生의스포쓰
렌지놀드·빠-카監督 칼!렘엘提供無聲版
애드마고이 애프링낫프 主演
猛火의決鬪 로스코다-망監督
콜럼비아社全發聲
P·C·L娘子群의活躍하는名品!!
ユ時節!어린이여숨이으로容想하를 박어든그作品!!와-모아小說家의元社佐佐木邦氏原作인家庭小說을映畫化한微笑의家庭劇!!
P·C·L社超特作全發聲 山本嘉次郎監督
いたずら小僧
伊東薰 藤原釜足 夏目台子 主演
三日廿日낮부터三日間特別公開 特選名畫堂堂히上映

若草映畫劇場 電本二五七〇
十九日ヨリ五日間特別大公開 入場料 階上三〇 階下二〇 大人五〇
一日二回晝十二時半、夜六時半開演 パラマウント超特作發聲日本版
新探偵映畫 ガラスの鍵 ジョージ・ラフト フランク・タットル 監督 主演
二、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文豪……牧逸馬先生最後の遺作
都會の怪異七時〇三分 木村荘十二監督、中野英二、丸山定夫、千葉早智子、嵯峨善兵主演
三、東日大每國際ニュース 一三六
四、パラマウト本年度超大作
壯絶悲愴雄大果敢 最後の駐屯兵 チャールス・バートス 監督 ケーリイ・グラント ガートルド・マイケル ウォードジインズ 主演
名優ベンガルの槍騎兵を凌ぐに足る崇高の名作!
파라마운트會社封切館

中央館 永樂町 電本二二二一
來る十八日大公開(晝夜二回)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文武太平記 曉の麗人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完成記念超超級作
原作 新興脚本部合作 脚色 陶山密 撮影 古泉勝男 應援監督 川手二郎 監督巨匠 曾根千晴
新興東京、京都、高田プロ合同作 オールサウンド版
曉の麗人 高田稔、伏見信子、山路ふみ子、高津慶子、立松晃、霧立のぼる、河津清三郎、月形龍之介、歌川八重子、淸水將夫、森静子、久松三津枝、大競演
新興オール・メンバー出演 監督 吉岡信三 脚色 如月敏 撮影 吉見滋男
文武太平記 原作 夏目先生の「坊ちゃん」より、オール・サウンド 主演 嵐寬壽郞、杉山昌三九、大久保清子、嵐德三郞、五十鈴桂子 助演
ユーモアと、スリルに富んだ寬壽郞獨特の明朗篇!
千馬興業會社提供漫畫
特急艦隊 全一卷
亂痴さはぎ 全一卷

忠北道內小作爭議 比前年十倍로激增

舍音가 地主舍音의橫暴基因

昨年一年間千件突破

【淸州】 충청북도의 작년일년동안부터 동십이월까지에 일어난 소작쟁의를 본다면 전년에비하야 약십배 즉천여건을 돌파하고잇스며 그내용을 보면 지주또는 사음의횡포로 소작권박탈(小作權剝奪)이 구할이상을 점령하는 동 실로 범연간과치못할 현실이라한다

醉漢三名作黨 普校生을亂打

【鐵山】 지난사일 오후네시경 평북철산군여한면 서봉동(鐵山郡余閑面西峰洞)부근에서 천월세명이 작당하야 보교아동(普校兒童)을 함부로 란타하야 혼도된것을그냥버리고 도망한것을 가리가든 동모의 응급수당으로 겨우 회생되야 철산읍내 동원의원(鐵山邑內東元醫院)에 입원치료중이 주일이 지난오늘까지도 차도가 업서 선천미동병원(宣川美東病院)으로 넘어갓다는데 이제그전말을 듯건대 피해아동은 철산군여한면가봉동(鐵山郡余閑面加峰洞)정상원(鄭相元)(四〇)의 장남 재진(在珍)(一三)은 차련관공보교 오학년생(車輦館公普校)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맛마추고 이상이의 동모와 가티집으로 도라올지음 엇더한취한 삼인이 주막(酒店)에서 나오는것을동모인 파에가 에ㅣ취해하고 놀려든것을 불쾌든모양인바 취한은 이에분개하야 엇던놈이든지잡으려고 엇다고하는동에 정재진(鄭在珍)도 가티 따라뛰다가 고만 붓잡핀바되여 머리와 압흿가슴 허리를발길과손으로 상이이따리는 바람에 고만혼도되엿다는데 그자들은 겁을먹고 도망을하엿다 몬저 다러나든 동모들는그제야 혼도되여잇는 재진(在珍)을 업고병원에 입원하는일방가해자들을 조사하야 고소를 제기하엿다는데 가해자는 철산군여한면추암동(鐵山郡余閑面秋岩洞)정영현(鄭永賢)(二三)김승겸(金承謙)(二二)정승천(鄭承天)(二二)이라고하는데 선천미동병원의 진단에따라 사건은 커질모양이라 한다

私立初等校에도 補助費를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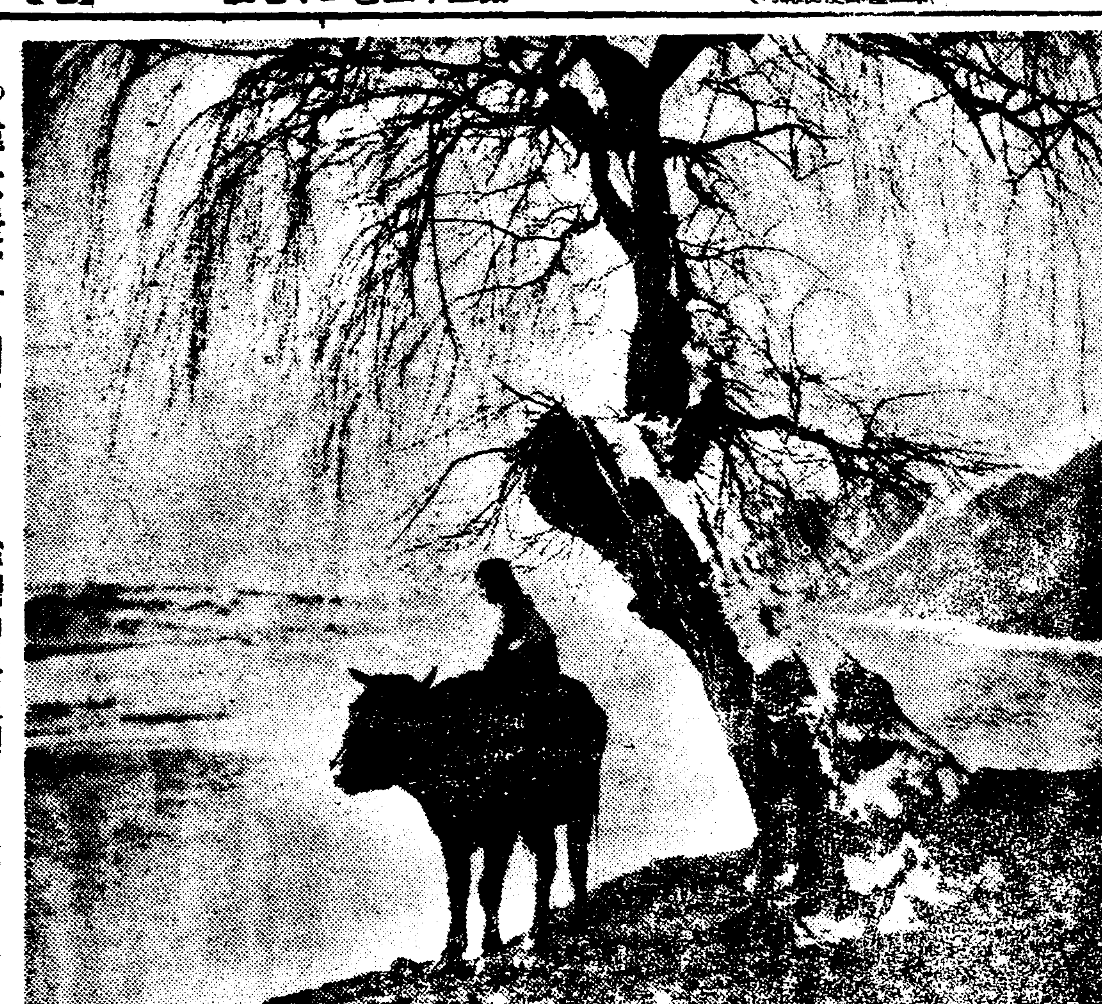
機關增設과同時既設校維持必要

元山第二教育部會主張

【元山】 지난 십팔일 원산제이교육부회(第二教育部會)석상에서 김경준(金慶俊)의원은 사립학교에 보조비를 주어달라고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미취학아동이 가두에 범람하는 이때에 공교기관의 증설은 무엇보다 필요한것이지만 그와동시에 현재 원산시내에 잇는 사립학교로서 경영난에 빠저잇는 학교가 만흔현상이니 본회에서 그재정비약한학교에 보조비를 주는것이 조흠을생각하니 당국의 의향이 어떠할가고하얏다 이에 대하야 부당국에서는 제이교육비의 경제관계상 지금상태로는 불가능하나 본회경제에 여유가 잇게된다면 다소라도 보조하겟다고 대답하얏다

公金橫領犯 猛搜索開始

【東拓里】 동척리지점(東拓里支店)공금횡령사건(公金橫領事件)의 중요범인인 동회사회계원 김달묵(金達默)의행방수사에대하야서는 약한달전에 그의안해김앵민을 검속하엿스나 특별한단서를 엇지못하엿슴으로 지난십륙일에 석방하엿다함은 긔보와 갓거니와 동사건에 관하야 리리경찰서 사법계에서는 김달묵의 처남되는 박근영(朴根永)(假名)(二二)을 사오일전에 검속하고 김달묵의 행방과 그후 통신관계를 엄중 취조하엿스나 신통한 단서를엇지못하엿슴으로 지난십구일에 석방하고 형사대는 만주각지까지 수배망을 느려노코 그행방을 수사중이라 하며 라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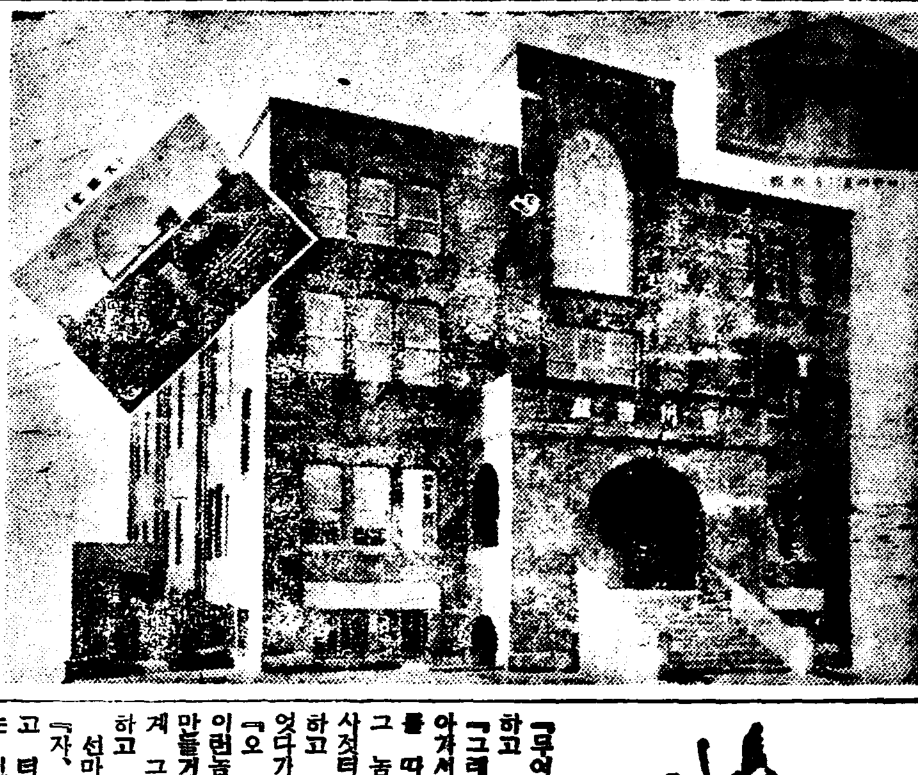


◇偉大한"봄"의"힘"! 【平壤】 위대한 봄의힘! 대동강을 굿게잡아매고잇든 어름도 봄의힘의입김에 녹아풀니엿다 그만 ◇寫眞……十九日大同江의解氷光景

待望의商業實修校 四月中開校實現

—十七日附設立認可—

【宣川】 최근 실업학교의 필요가 점점노파가는이때 더욱이 상업도시인 선천에 아직까지 상업학교가 업서서 대다히 유감으로 생각하야 선천회관에서 상업실수학교(商業實修學校)인가원을 도당국에 출원중이든바 지난 삼월십칠일로 완전한 중등학교 정도로 인가를어더 오는사월달에 선천회관에서 개교하기로 되엿는데 일반사회인사들은 만흔기대를가지고 잇다한다



◇宣川商業實修校가 設置될 宣川會館

安岳蹴球大會 來廿五、六兩日間

【安岳】 춘추년이회의 년중행사인 안악축구대회는 벌서 제륙회에 이르럿는데 오는이십오이십륙량일간 안악서창리 공설운동장(新倉里公設運動場)에서 버러질모양인데 주최자안악축구단에서는 만반준비에 분망중이며 특히 금번우승팀에는 신안제목상회(新安材木商會)와삼흥회사상회(三興貨物商會)에서 긔증한우승컵을 수여할것이며 러비이십원까지 부상으로 수여할작정이라더라

우편국에까지 수배를느리고 사선부가까지도 엄밀하고 엇는중이라고한다

二日火災六件

【新義州】 지난십칠일로부터 십팔일까지 신의주부내에는 화재가 한꺼번에 여섯곳이니 발생되얏다 이와가티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일은 근래에 처음잇는일로 신의주소방대에서는 계속하야 이르는 화재경보에 갈팡질팡하며 어디를 먼저가여야될지 몰라 대분요를 이르켯다 불은 모다 적은 불이지만은 그것을 적어보면

▲십칠일 오전아홉시에는 의주광산(義州鑛山)의 자동차가 신의주부내 복강려관(福岡旅館)압헤서 휘발유에 불이당기어 일시소동을 하얏는데 손해는 오백원이요 원인은 그날자동차 운전수가 그회사의 사장을 태우고 절과려관에까지 어르켯든바 밧게서 기다리다가 치움을 이기지못하야 숫불을피웟든것이 불행히 휘발유통에 날려간듯것이라고한다

▲그날오후한시이십오분 약죽정(若竹町)최진섭(崔珍燮)이란사람의 집에서도 불이 이러낫스나 굴뚝한개만태우고 별일은업섯스며

▲또그날오후세시오십분경 매지정(梅枝町)십오번지 김명제(金明濟)의 집에서도 굴뚝에서불이 이러낫섯고

▲또그날밤 열시이십오분경에는 록정(綠町)일번지 중산응희(中山應熙)의집에서 불이 이러나 그집을 반소하고 진화하얏스며

▲또그날 오후세시오십분경 매지정(梅枝町)미곡상 최준갑(崔俊甲)의집에서도 불이 이러나 그집을 반소하얏스며

▲십팔일새벽다섯시삼십분경 초음정(初音町)계영근(桂永根)의 집굴뚝에서 불이어려나 역시 그집을절반이나 태우고 진화되얏다

더욱이 십칠일 아츰까지 신의주에는 눈과비가 석거나리어조강하든 일기도 안이엇는데 이와가티 불이만히 일어남은 주목되는일이라고한다

牙山灣遭難漁夫 八名屍體로歸還

【屯浦】 지난십사일오후오시경에 충남아산군 령인면백석포압바다에서 고기잡이하든 어부팔명이 폭풍으로 말미암아복선되여 칠명은 즉사하고 일명은육지로 헤엄처나와 겨우생명을 건젓다함은 임이 긔보한바어니와 그후 조난당한 가족들은 죽은시체나마 차즈려고널고 널븐 바다를 헤매이든 나머지 지난십륙일 경기도 진위군오성면(振威郡梧城面)근해에 파선된선배와 함께여덟명의 죽은어부를 발견하고 즉시로 아산군둔포면 창용리(牙山郡屯浦面倉龍里)자긔집으로 운반하야왓다고하는바 전긔 창용리는 당하방조 울음의 세계로 변히고잇다한다

安岳高普期成에 또三萬餘圓喜捨

李相殷氏六千圓을筆頭로

—갸륵한이教育熱—

李相殷氏

張文華氏

【安岳】 …들히야 폭주하는 안악고등보통학교긔성의 회자금은 도합삼만수천원에 달하얏다 대원면차선용 김선옥 림귀범(大遠洞 車先容 金善玉 林圭範)삼씨의 삼천원식 회사한것은 작보한바이어니와 이제다시금 룡문면동창포리상은(龍門面東倉浦李相殷)씨륙천원과 송홍식(宋鴻植)씨 어천원과 표석윤(表錫胤)씨 어천원 안병옥(安秉玉)씨일천원이며 도들어와고 문산면(文山面)에서는 장우화(張禹華)씨일천원을비롯하야 사현리최귀창(沙峴里崔貴昌)씨가일천원처의토지를내엇고 도김처욱(金處郁)씨가삼천원 손호식(孫鎬植)씨일천원 안악읍원형로(元亨魯)씨가 오천원 명정리박신영(明井里朴信永)씨오백원가치의 토지 그리고 다시금 룡순면유설리(龍順面柳雪里)에 거주하면서 농업을주로하고 실천실업가로 명성이 잇는 정능호(鄭能浩)씨의 이천원과 판팔리리정찬(板八里李禎燦)씨일천어백원과 수삼리백남두(秀三里白南斗)씨이천원합하야삼만수천원에 달하얏다 동창포리상은씨는 자수성가하야 지금에 어르러서는 백만부호가 되엿는데 사회사업에는 솔선하야 무어이나할리상으로 가진유지로서 동리씨의 장래의 큰포부가 착착 전개될모양이어서 일반이 주목한다고한다

公金을橫領한 書記近日送局

【榮州】 경북 영주군 풍기면(榮州郡豊基面)면서기 홍사익(洪思郡)(二七)은 작년도에 매매한 토지를 남에게 저당한사건이 발로되엿스나 경찰의 관후한처분으로 무사히 동면소에 근무하든중 돌연경찰에 피검되여 엄중한 취조를바든바 그간취조의 일단락을지어 불원간 검사국으로 송치되리라는데 전기 홍사익은 작년가을부터 실시된 도로의 자갈 부역(賦役)환산금과 사방저금(砂防貯金)등 이백팔십여원을 횡령소비하엿다한다

仁川支局後援의 新春野談大會

—本報讀者는特別割引—

【仁川】 조선야담동호회(朝鮮野談同好會)주최와 본보인천지국후원하에 야담계의 거성 신정언(申鼎言) 유추강(庾秋岡)량씨를 초청하야 오는 이십삼일 오후 칠시반부터 공회당에서 신춘야담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회비는 삼십전으로 본보독자우대권자참자에한하야 이십전으로 하리라한다

中等校合格者

安東農林 (四十七名)

(農科) 權五鎭 姜信友 權五鎭 金榮大 李承寶 沈載東 李仁護 李春浩 權休文 金鍾善 朴永錫 李龜五 權丙海 卞海寬 孫逸成 馬鎬振 李鍾九 禹石允 金相稷 權五甲 李允敎 呂基鉉 金重煥 李元榮 金信奎 金明漢 李源岱 沈熏澤 宋相植 (林科) 李東煥 金鴻大 權寧燮 權正玉 池泰逢 金燕鎭 李奎植 李憲卓 宋東燮 朴熙玉 柳時昇 權九憲 李暻洛 金奎應 禹龍九 權學榮 辛承杰 金永俊

晋州高普

孔孝錫 成煥哲 崔正琪 安錫仁 朴光培 金鍾洵 崔鍾台 田原鑛 金永國 趙遊 金鍾寬 金載甲 金永煥 姜大根 崔允明 金基潤 柳在馨 盧應列 李琪鉉 徐仲樺 具滋益 裵孝鎭 具泰益 全有翼 諸吉雨 朴基瀾 黃熙洙 金鍊衛 朴永濟 許據 具孝澤 趙正濟 河憲善 陳貞奎 鄭禹淳 李泰玉 吳仁澤 金容禧 趙性濟 鄭淳永 河光根 河萬鎬 姜大甲 白相鉉 李容鎬 方子源 梁喜範 李憲龍 卓成喜 金震權 金晶圭 金炯紹 趙龍林 金益濟 金榮慶 姜圭淳 李炳述 黃尙秀 姜大見 鄭載璇 李相烈 許相辰 車東顯 朴應鏞 張王琪 趙基祚 金東振 金鍾均 盧東鉉 鄭永局 金台鉉 明周翰 徐鳳善 禹宅煥 柳璣烈 柳璣燦 朱碩敏 禹東圭 孫宰鎬 河忠洛 金東旭 朴喆熙 金洙元 金鍾業 郭洙豫 鄭吉永 南天祐 南相殷 金錫鎭 鄭鍾培 金昌伯 卓壬戌 金福吉 李相讚 金達容 朴孝洙 曺文圭 姜聲律 梁麟錫 金大萬 李鴻 金鉉漢

異次頓의死 【121】

李光洙 作 金奎澤 畫

『무어?』 하고 선마로의 술시청은 놀라 『그래서 그때에 돌을때가 날아가서 이차돈이 놈의 이마빼기를 따렷단 말슴이오. 그 돌에 그놈의 골사배기가 아조 바사저터러면 조흘것을』

하고 알공은 잠시 말을 멈추엇다가,

『오 그나 그뿐이오, 또 잇소 이런놈들은 모도죽여서 종생을 만들거나 지옥으로 보내다고,제게 그런 도술이 잇노라고』

하고 선마로와 공목을 본다.

선마로는 벌떡 일어나면서,

『자, 인제는 더 생각할것도업고 더 주저할것도 업다. 인제는 신라를 위하야, 망하라는나라를 붓들기위하야 도탄에 든 창생을 건지기위하야 더 기다릴수가 업다. 공목이손。 열두명문군사를 이손이 맛터스니 곳 풀어서 대궐을 에워쌋고 서울을 골목골목이 지켜서 물샐틈업시 하라고 일르오。 이 밤으로, 이 밤으로』

하고 명령하는 말씨다.

그리고는 선마로는 알공을 향하야,

『여보오。 알공은 말듯군사를 풀어 여섯마을에 전령하야 섬명책에 오른 사람이나 아니 오른 사람이나, 한마로, 이마로까지도 모도 설화가티 잇컬하라고 지워하오, 이 밤으로 이 밤으로』

하고 더욱 어세가 엄하다。

『한마로도 이마로도?』

하고 알공은 의아한드시 뭇는다。

『응. 한나마 사인이상으로 하나 빼지말고。 모도모인 곳에서 상감과 이차돈의 죄를 설파하라오。 그리고 한마로와 이마로가 보는 압헤서, 바로 그 눈 압혜서 이차돈과 달님의 목을 버이라 하오』

하고 선마로는 주먹을 불끈 쥐인다。

알공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그러기로 아밤에?』

하고 공목은 겁이 나는드시 눈을 크게 떠서 선마로를 바라본다。

『응 이 밤에, 시각 지체말고』

하고 선마로는 공목을 노려본다

『오늘 떠 생각해 보시고』

하고 공목의 용성은 떠린다。

『무엇을 떠 생각해?』

하고 선마로의 어성은 커진다。

『그래도 매사는 잘 생각하여서 실수업시 하심이 조흘까 하오。 그리다가 공연히 인심만 소동되고——』

『다시 입을 버리지 마오。 명령이오! 만일 다시 한마듸라도, 눈치만이라도 이몸의 말을 거슬이면 이 칼로, 이 칼로 목을 버여서 군법시행이오。 자 어서, 어서』

하고 선마로는 손을 들어서 두 사람에게 문시졸을 가르친다。

공목이 압을 서고 알공이 뒤를 따라 나간다。 선마로는 두 사람이 나간 뒤를 바라보고 섯더니, 혼자ㅅ말로,

『아아 인제야 마츰내 이르럿다。 기다리고 기다리든 운수가 이제 이르럿다。 오늘 밤 닭 울녁히면 이몸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몸에 쌍룡을 수 노흔 긴 옷을 입고, 만조백관의 조하를 바들 것이다。 이차돈을 따르든 계집들을랑 모도 후궁에 두고 인제 이천하는 모도이몸의것。 만백성을 죽이고 살리기는 모도 이몸의 마음 하나, 뜻하나。 이십년 먹은뜻을 오늘에야 일우엇다』

하고 선마로는잠깐생각하다가,

『그러기로 상감을, 이몸의 친형을 참아죽이기까지야 어이하리。 그러타고 살려두면 후환이 되고。 죽일까。 남을 식혀죽이고 이몸은 슬퍼하는 양을보이고? 에라 어떠케나 될터이지。 천하의 큰일을, 천명이 돌아가는곳을 막을이 누구냥。 막는자는 모도 부서뜨려라, 모도 죽여라』

하고 칼을 쭉 빼아든다。

선마로는 또 혼자ㅅ말을 계속한다——

『그르기로 아들이업스니 무엇하리。 천하를 엇기로니 누구에게 전하리。 삼천궁녀를 꿀고로 보아서 아들나기를 거다릴까。 아직도 이몸이늙지야니하엿스니 압호로 삼십년은 떠 살려든, 구십향수를한다면 사십년은 더 살려든。 임금이된 뒤에 아들을 나려라도 늣지는 아니하려니』

하고 앵그레 웃는다。

皮膚病이 가장잘낫는다고 天下에好評을밧는 六一〇ハップ는 化學의進步에依하야 完成된高貴藥을 配劑한專賣特許藥입니다……

天賦의福音

皮膚病에 꼭쓰지안흐면안될

六一〇ハップ (육일공합)

六一〇ハップ의特徵

皮膚病으로 곤질곤질가렵고, 앞흔것은 藥效한 薄布에 寄生菌을 撲滅하고잇는까닭입니다.

六一〇ハップ

△皮下深部까지 잘浸透하야 痼疾인 이런皮膚病菌을顯著하게殺滅식히는作用을가지고

△體內에잇는 毒素를 體外로 排出식힘으로 病源을 根本的으로 驅逐하며

△身體에 自然的으로 賦與된 疾病을 自癒하는 機能을 活潑케 促進식힙니다。

그럼으로이런 三大作用이 相俟하야서 迅速하게 疾病을 根治하는것입니다。

皮膚病에는只今곳…… 곤질곤질가렵고, 옴신옴신알흐고, 더러운 고름이 흐르는 不快한

六一〇ハップ를 試用하시면直席에見効

모기, 벼룩, 빈대에도即効

△主治効能

옴、무좀、음부습진、마른옴、腫氣、땀띄、其他皮膚病、痔疾、胃腸病、婦人病、神經痛、

◉洗面에 一二滴쓰시면 얼골의 살결에 潤이나고 고와지며 ◉婦人의 月經에도 때여使用합니다 ◉沐浴물에너어쓰스면 血液循環을 잘하고、精神이 爽快하여지고、身體도 더욱튼튼케되며 僅少한 費用으로 全家族이다 溫泉氣分을 맛볼수가잇습니다。

藥은 各地主要한 藥房에잇스며、原液대로팔고잇스니 물에타서쓰십시요、說明書에 詳細히적혀잇습니다。

斯界의權威

婦人科 醫學博士 川地 推奬
皮膚科 醫學博士 長谷川 推奬
內科 醫學博士 鎌田 推奬
小兒科 醫學博士 森 推奬

(藥價) 三十錢 一圓 二圓 三圓五十錢 六圓五十錢

發賣元 名古屋 武藤鉦合名會社藥品部

長生不老도 陽氣가 조아야!
大業成就도 陽氣가 조아야!
陽虛한 男子는 生不如死다!
速히 이—樺太廳官營採取品인

眞品 海狗腎 을服用하라

本品은補精腎氣强壯에神秘的靈効가有한바北洋寒帶地方의産物을樺太廳에서官營으로捕獲하야同廳水産物檢査所에서嚴正檢査證明한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一服하시면그神効를能히料量할것이외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說明書請求次第곳進呈함)

發賣元 釜山府草梁町三貳二番地ノ三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長二二九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昔も 今も

効能で賣れる 七ふく (시찌후꾸) ひえ藥 (히에구스리)

効能 上氣를引下하고通便을잘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효능으로 팔니는)

大阪 高津表門筋 本家 七ふく 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 電南七二九

淋疾로알코고안할것도…… ネオチリン (네오지린) 이支配한다

各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三月十九日부터大公開!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二
第一回……午前十一時 第二回……午後三時 第三回……午後七時二十分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팔프마후이氏大作 假面의男子 (名を失へる男)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 朝鮮語 春香傳
次週――― 次次週――― 霧に立つ影、次次次週―――

三銃士 邪正의劍을잡고快男兒달타니안登場
RKO라듸오超大作映畫 三月十九日封切 毎日三回

多情佛心 日活超特作映畫
로맨스의거리 RKO라듸오特作映畫

團成社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九七九
三月十八日より二十四日まで 上映時間表
朝日國際ニュース
漫畫 繪本桃太郎
伊藤大輔作品 江戸みやげ子守唄
悲戀華
浪花館

婚の夜 四月二十日부터 五日間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
稻入娘 主演 田中絹代
몬데이의荒武者飛行

低金利時代 本格的展開

郵貯、日銀利下着手

【東京電話通信】馬場藏相은 低金利政策의 實行을 組閣成立과 同時에 聲明하고 그 첫거름으로 十九日에는 昭和十年度 未發行分公債와 米穀證券의 發行條件을 變更한바 이公債政策을 通하야 低金利政策을 實現할 大藏省當局은 今後郵貯金利引下、五分利借換日銀利下에 對하야도 相當히 實行에 着手할모양이다 馬場藏相이 低金利에 對하야는 市中金利에 對하야 積極的으로 指導力을 發揮할意思가 明白하며 … 換케되엿스며 五分利借換에 關하야는 從來 歷次市場에 그 實行이 流布되고 公債에 對한 信賴가 動搖되는 弊가잇슴을 보고 借換에 依한 利得은 少額이나 實行하야 그 不安을 防止하라고 此等의 方法에 對하야 不遠間 關係局에서 協議키로되고 米穀證券도 다시 金利를 改訂할 意向을 보히고잇슴으로 當局의 市中金利에 對한 指導力은 金融界에 잇서서 매우 注目된다

新金融政策好感

今回의 新公債發行條件變更은 前途公債消化의 障害를 만들新制的低金利時代에 進하는 第一步로보이어 繼續하야 日銀利下、郵便貯金利下의 實現必至로보이기에 至하얏다 數日來日銀所持四分利公債의 賣行이 激增되어 十九日午前賣止키에 至하얏는데 今月初以來의 賣却高는 一億二千萬圓에 達하얏고 新發行의四億圓法改正에關한根本方針은 …

今年公債

七億六千百萬圓 比較定九千萬圓減少

【東京電話通信】昭和十年度公債發行 豫定額은 一般會計七億七千百萬圓 特別會計 八千萬圓 合計 八億五千萬圓이든바 十九日發行의 公債發行의 累計는 公債로서 七億六千百萬圓이 되어 豫定額보다 九千萬圓減少가 되다 이는 自然增收 …好感되엿다

產業統制强化

重要產業統制法의 改訂再檢討機會

消費者立場도重視

【東京電話通信】重要產業統制法의 存續期限도 八月로서 第一段階를 告하기에 至하얏슴으로 特別議會에 提案할 改正法에 對하야 商工省은 廣田內閣의 新政綱을 參酌하야 審議를 進하는中인데 同法改正에關한根本方針은 消費者의利益擁護에 重點을 두기로되고 川崎商相의 決意도 이에 至하얏다 卽統制法의 運用에 實하야 今後必要하다고 認하는 產業은 指定하고 아우르차 이르의 進出을 制限하야 從來生產者의 利益에 對하야 何等規定이업섯든것을 새로히 條項을 加하야 新統制法은 輿論과 倂行하야 運用을 容易케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具體的一例로서는 今日까지 세멘 …

電力統制 强化決意

具體案考究着手

【東京電話通信】民間電力界로부터 注目되든 電力統制强化問題에 對하야 賴母木遞相은 內閣調查局과 遞信事務當局의 各意見을 聽取한結果 遞信國策의 第一着手로서 電力統制强化의 具現에 一步前進의 決意를 하고 遞信省電氣局에 對하야 되도록 速히 具體案의 考究立案에 着手케하는 一方同問題는 各省所管事項에도 關係가 잇슴으로 內閣調查局을 通하야 具體的調查機關으로서 農林、商工、遞信、鐵道와 軍部兩省의 各當局으로부터 組織한電力統制準備委員會를 近間 設置할터이나 …

米自治管理案 無難通過될豫想

總督府도不遠에 基本調查

七月頃에 組合組織

今期特別議會에는 米穀自治管理案이 提出될것은 旣定事實이며 또 無難通過되리라는것은 疑心할바 업는모양이어서 總督府當局으로서도 이準備를 爲하야不遠 基本調查를 着手케될모양이다 同案에 依하면 統制數量의 配定은 日本內地側이 三割五分 朝鮮側이 四割三分 臺灣側이 二割二分인데 第一次의 統制는生產者團體 目標로한것으로 生產者側의 米穀統制組合을 組織케하야 府郡島를 單位로 二百二十個所를 設置케하고 다음의第二次로 米穀商을 中心으로 米穀商統制組合을 設置케하야 所謂過剩米가 생길때 最大限度로 貯藏을 管理統制케 하려는것이다 그리하야 于先 初年度中에는 組合組織을 完了케하고 同時에 倉庫는 三個年內에 完成케하려는것으로 組合에對한 補助는 從來의 正租長期貯藏과가튼 方法에 依하야 倉庫建設、貯藏資金利、同組合과同組合聯合會等團體의 經營費를 補助케할터이다 豫算만은 이미前會議에通過되엿든것임으로 그中의 調查費二十四萬圓은 곳流用할수도잇는 關係로 먼저組合組織에 對한基本調查를 開始하려는것이다 組合組織에 着手하기는 議會後임으로 七月頃이라 豫想이라한다

正租檢查後實情

◇……商人受檢六割

朝鮮米 商品化의 最後策이요또한 移出制限의 傍系的方便으로 昨年부터 實施되든 正租의强制檢查는 果然어떤方面에서 어떠케 利用되엿는가하는것으로 穀物檢查所 調查에依하여보면 昨年十月一日以降 今年一月三十一日까지의 數量은 合計九百七十九萬三千百五叺으로 그利用比率을보면 亦是 米穀商의 三四%를最高位이고 그다음이 仲買人의二五%地主農場側이 二二%이고生產者側은 不過八%인데 共販에 附付된것과 其他에 屬하는것까지 一般生產者側의것이라해도 一七%에 不過하는程度이어서强制檢查의 結果로 市場에나오는正租는 殆半이 一般小生產者에게서 穀物商仲買人等의 손을 經由하는것을 알수잇다 어는 小農의 檢查手續、手數料納付의煩雜等을 避하려든것과 同時에法令으로 畢竟잇서强制檢查의結果는生產者側보다는 商人側에서 利益을 더 어들수잇는것이다 檢查所各支所別과 受檢者別百分比는 다음과갓다

◇正租受檢數量

仁川	二、三九六、六五五叺
群山	一、九九一、一〇三
木浦	八一〇、〇二七
釜山	三、三六七、六〇一
鎭南浦	一、九八一、三九五
元山	二四六、三三五
合計	九、七九三、一〇五

受檢者別百分比

地主農場	三、三〇、六八四、三三、九%
生產者	八〇、一八五
穀物商	三、三五〇、三三三
仲買人	二、四五三、八九五
共販	五九三、〇四六
其他	三六八、〇三一

이 貸出의 最低率은 利子手數料를 加算하면 五分二厘가되다 그리고 簡保는 公益事業地方公共團體、土木事業等에 起債形式으로貸付中인데 低金利時代의 展開는 이簡保資金이 顯著히高利로 化하게되다 卽 現在道債中에도 殖銀引受와 簡保의 特殊性分五厘債로되어 이것과 同率乃至右以下의 低利가 必要함에不拘코上記와가티 五分二厘以上의 高利

中旬對外貿易

入超三千餘萬圓

【京城電話通信】大藏省發表에 依한 三月中旬 對外貿易概算은 다음과갓다 （單位千圓）

輸出	七四、三七六
輸入	一〇五、一〇一
入超	三〇、七二五
合計	一七九、五七七
一月以後入超累計	二〇二、四九五

朝鮮簡保資金

運用難念慮相當

新馬場財政에 依하야 朝鮮內에도 低金利徹底가 新拍車를 豫想케 되엿는데 이低利深化는 朝鮮簡易保險 資金運用上에 深刻한 採算難을 與하고 朝鮮內의 簡保資金運用計畫은 根本的으로 採算基準의 改變이 要求되는 狀態로 되겟따 朝鮮內 簡保資金은 昭和四年以來 累增되어 十年九月末資金額은 一千五百五十三萬七千圓에 達하고 幾何學的으로 年五百萬圓의 增加인데 이貸出의 「코스트」는 昭和四年의計畫에 基하야 豫定利率四分으로 …

公債條件變更 負擔輕減目的

▲……深井日銀總裁談

【東京電話同盟】年度末公債와 來二十五日期限의 米券發行條件變更에 關하야 深井日銀總裁는 如左히말하다 今回發行의 公債와 米券發行條件을 變更한것은 國債의 負擔輕減을 圖하는 一方低金利를促進케하기 爲한것으로 他方金融界方面이 大概利廻가 低下하야도 期限이 短縮한것을 歡迎하는 傾向이 잇슴으로 此等兩方面의 傾向에 應하야 利廻를 低下케하는 同時에 期限調節을 圖한것이다 新公債와 米券의 發行에 關하야서는 金融界가 現在와가티 價還期限의 相異한것及 期限의 短縮한것을 好感하며 今後消化는 悲觀할必要가업다 또 新公債의 發行期日을 당하얏든 日銀의 所持高에 적어진것과 數日來旣發四分利債에 對하야 巨額의 買入申込에 接한것에 依한것이다 旣發米券은 現在는 賣止치안코 잇스나 情勢如何로는 條件에 多少의 變更을 加할지도모른다

"滿洲"國產業統制法

七月頃에公布할豫定

【新京十九日發同盟】滿洲國產業統制法規는 이미原案을 脫稿하고 關係當局의 最後的協議를 行하야 附屬地行政權移讓期인 七月에는 公布케되리라고 期待되는데 同案의 目的은 從來다만滿洲國經濟建設綱要其他에 依하야 漠然企圖되든것을 法文化하는同時에 自由業과 統制企業의 限界를 明確케하야 日本資本의 進出을 容易케하고 또國內產業의 合理的發達을 期코저하는것으로 그統制骨子는 大體如左하다

一、重要產業에 就하야서는 現狀대로 一業一社主義로하고 政府의 統制下에 事業을 行케할事

一、被統制產業以外는 總히自由로하나 統制法規에 規定되는產業은 許可에依하야 統制할事

一、現在의產業設備過剩의것은 中止케하는 同時에 適當한 處置를 行하야 將來擴張을 强制的으로 操縱할事

一、幼稚產業이라하나 社會政策的見地로 同種業의勃興이 …

一、國民生活에 特히密接한關聯을가진 產業에對하야서는 販賣價格의 統制를 行할事

一、日本의 旣存產業과 緊密한協調를가진 一方適地適業主義를 徹底케하야 滿洲經濟의理想實現을期할事

以上과가티 產業統制法은 滿洲國產業國策의 根本的確立을 意味하는것인데 그가장 難點인것은 日本產業과의 調整問題로서 今後日本當局과의 折衝은 相當히多難하야 迂餘曲折을 거듭하리라한다

黃水院江水力發電

長津江水力에 認可

長津江發電三十三萬키로와 並行하야 日本第一位를 자랑하는 黃水院江水力發電은 各方面으로부터 開發認可申請이잇서 業界에注目이든바 二十日長津江水力株式會社에 對하야 그開發權이 正式으로 認可되는同時에 咸北送電線路의 建設許可가잇섯다 同發電及送電은 鴨綠江支流虛川江의 分流黃水院江의 水力을利用하야 貯水池를 建設하고第一期二十一萬五千키로와三三萬發電하며 第一期計畫에는 更히三十八萬키로와合計六十萬키로를 發電코저하는 目標로 하는 東洋 第一의 發電能力을 가진것으로 그 供給區域은 長津江發電이 興南、平壤線以南의 朝鮮內에 電力을供給코저 함에對하야 新黃水院江 發電은同線以北 咸南北、平南北及方을비롯하야 滿洲國內도 包含하는 彪大한地域을 擁하고長津江水電에서는 認可와 同時에直時 實測에着手할터로 三個年의工事豫想하고 昭和十五年에는 第一期工事를 完成할터로 同發電實現後는 勃興코저하는 北朝鮮北滿一帶의 產業은 更히飛躍的活氣를 呈할것으로期待된다한다

朝運混載車扱

對策講究

非合同業者運動

朝鮮運送에서는 去三月十一日부터 京城、京南鐵道沿線間 京城、京東鐵道沿線間의 混載車扱을實施하얏슴으로 非合同運送業者에게 衝動을與하야 群小運送業者의 死活에關한 重大問題가 되어 … 深刻化를 廳來하드래도 이根本的採算基準의 改訂簡保運用計畫의 是正이 必要케되리라고 總督府에서도 研究中이라한다

米日爲替保勢

【大阪十九日發同盟】十九日의 米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實二十八弗九十五仙으로 買二十八弗九十二仙으로保勢

▲東京爲替（廿日）
對米 賣 廿八弗八分七　買 廿九弗
對英 賣 一志二片卅一分卅一　買 一志二片

▲大阪爲替（廿日）
對米 賣 廿八弗八分七　買 廿八弗十六分十五
對英 賣 一志一片卅三分卅一　買 一志二片

에게對한 致命的打擊이라하야目下對策을講究中이라한다

取引停止

▲（三月十三日）穀物 …

經濟界消息

○商工聯合會組織改革＝京城商工聯合會에서는 十九日 午後五時부터 役員會를 열고 會目體의 組織改革問題에 對하야 協議한結果 春期에열닐 定期總會는 一時 延期하야 改組案을 세우기로되야 正副會長役員으로서 十名의委員을 選定하고 商工會議所의 意向도 參酌하야 第一回의 委員會를 열기로되엿다고

○京紡二回拂込完了＝京城紡織會社 新株第二回拂込（一株에對하야 十二圓五十錢四萬株）는 二十日로써 完了하엿다고

京城府樂園洞一九八番地 富士屋 …

今日財界（二十日）

◆米（單位圓）

仁川期米	先限	三六・八五	三四低
大阪期米	先限	三七・三五	[illegible]
三等米（仁川）一石		二六・五〇	[illegible]

◆市中金銀

正租（仁川）一等	一叺値	[illegible]
金	一匁賣	十二圓七十錢

◆株（單位圓）

朝新	三二・九〇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illegible]

高價엔伸惱코 低價에는下落

三月一日現米의 二百八十餘萬石의 激減을 唯一한 好材料로 一般反撥을示하엿스나 內地二十九圓八十五錢의 十二錢 當地二十九圓九十錢의 二十錢의 反高를 示하고 二十錢以內外의 反落을 告하더니 二十錢以上의 反騰을 示하고서 … 因하야 保勢圈內에 入하고 말엇다 一、今年米의 前途需給의 不安은 누구나 肯定하는바이오 또 田中貞、山種等의 强氣側의 實勢를 …

眞正恢復遼遠 五月까지混迷?

今後의 低金利進行政策에 事業株는 好感이되겟스나 新政綱의 具體的實行이 어느程度의 것일지 公債增發과 增稅의 程度等을 … 政策이 遠히 具體化될것이오 依然히 暗行模索으로 政綱에 … 되겟지 五月頃까지는 混迷가 繼續되기 쉬우며 昨年高價에서 五十圓棒下된東新은 아즉도 反撥無力의 實情인바 昨後場에 山一이 投하얏다는 點이잇스나 …

地場買來客賣

그決戰果如何?

二年繼續의 凶作後인으로 前途需給의 不安이 업지안흔것은 業界人으로서 누구나 否定치못하는 모양이나 再昨年凶作後인 昨年春暖期의 產地實物의 旺盛으로 一時暴落을 演出한것은 … 今年春暖期에도 相當한 出廻가잇서 實勢의 壓迫을 加할것으로 豫測하는 光景이다 …

依然暗中模索

財界의 急激한 改革이 不可能하다고는 하나 國防充實、財政稅制根本的改革이 廣田內閣의 重要使命인限 財界樂觀方針을 否認할수업는點에 株界의 不安이 큰 터이다 … 一、新內閣의 政綱政策이 어대까지 政綱發表前에 이미 나왓다고도할수잇스나 一、增稅는 程度如何에不拘코 表面에 恐怖人氣를 끄슨것 …

低金利策好感

大入超로戾賣

十九日大藏省은 四分利債新規發行을 發表하얏는데 新公債의 發行條件이 馬場藏相의 徹底한 低金利策을 表示한것이라하야日銀利下 二十日夕刻發表說까지 생기어 今前場은 寄付反撥이엇스나 金融界의 意向은 右程度의 發行條件低下는 事前豫想되는터이오 中旬貿易三千萬圓入超로엿서 引際는 다시 戾賣物에눌리엇다

▲東新 一三二・五〇（寄）…

後場低 弛 後場은 東新百三十一圓五十錢 日產七十一圓五十錢에 强堅寄後買氣不振하야 一齊低弛大引

株式 先高後低 鈍狀

前場反戾 昨後場低落의 뒤를이어 今前場은 投物一巡이오 日銀利下說을傳하야 東新百三十一圓五十錢에 一圓九十錢高 大新一圓二十錢高인 七十八圓八十錢 日產八十錢高인 百四十四圓 十錢 大阪八十錢에 寄付되後 戾賣物로 다시며러저 東新百三十圓八十錢 大新八圓二十錢後場 新三圓二十錢 日產二圓六十錢에 各大引

商況（二十日）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通通】市中一息商狀이나마 外貨債는 不安人氣濃厚化로 米貨六分半、五分半共히十六圓의 大暴落을 演出하고 公債長期物甲五分更히 五錢低이엇스나 있든러이다

甲五分利 一〇一、七五
四分利 九九、四五
佛貨四分利 一八九、九五

前三五分利는 三十錢引戾이오新發行된 赤字公債는 好人氣로繼續 强調를示하얏다

期米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二丁目

期米 極度閑散 釘付

前場小弛 昨後場阪地三十五十六錢에 場을止하고 … 一圓六十九錢止와共히 二十九圓 一錢에 場을止하였다 …

後場釘着 後場은 二十九圓五十錢에 同價始場後 四節까지 釘着이고 五節無賣買로 五十五錢에 止場하다

金・白・銀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本（2）三〇一六番 振替京城五壹五四番 代金引換販賣 文註方地 要送料先金

市場六感

株 山一投出로昨後場도低落되든 뒤를이어 新公債發行條件變更 으로低金利策을 好感하야 日銀利下說까지 튀어나와서 今前場寄는 一齊反撥이엇스나 ▲東新은十七日低價가 大低이란말이 잇다 ▲그러나드래도 一氣上進은 疑問적어도 百三十圓關門을 돌파하고 넘어가 ? ▲新政綱이 具體的으로 나타내기前에는 依然 暗中模索으로 眞正한 人氣安定이 至難視되는때문 ▲漫然한 恐怖가 甚하얏다면 甚한터이지만 이로서 激震은 ……

米 昨今의 市勢는 各地市場을 不問하고 難伸難押으로 全혀 無風狀態 ▲產地의 賣物이 업다하여도 奧地로부터 各浦口로 各浦口로부터 入港하는 米穀이 月前보다는 제법만흔 모양 ▲그러나正租는 의외인지 품적안하고 依然頑强 ▲그럼으로精米側은 算盤이 맛지안는다 고恨歎 ▲그러한現象인 만치 賣勢威壓이 全然업는바는 아니지마는 쌀의 中樞라고할수잇는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堂島期米閑散

【大阪電話】無材料이오 東京의 不味와共히 …

株式 期米 玉 柳來恒商店 仁川府本町二丁目四 電話 五三六 七三八 七七三

場面極度의 閑散을 呈하야 今朝는 僅히 一、二錢幅의 小浮動을거듭하얏다 程度의 沈滯이오 無活氣商狀이엇다 市場은 氣迷濃厚裡에 弱氣는 品薄高를 强氣는 春暖低를 豫想하고 各地產地의 動向을 注視하는바 今朝主要賣買는 朝鮮側 東京側 地場處分

▲賣方＝朝鮮側 如左하다
▲買方＝地場强氣 地場處分

株式 朝取短期 二十日

	前寄	前引	高値	低値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租의 市勢가 頑强하니 떠러진다고 볼수도업고 또올른다고 볼수도업는걸 ▲春暖期의 閑散을 如實히도 演出하는군 垂手傍觀이나하는수밧게 ▲그러데 阪仁兩地를 通하야 地場買來客間의 鬪爭이 어떠케 結局 主客間의 싸홈이 버려지는모양 ▲客의 損이 업스면 主人의 損이 날모양이니 主客間鬪面에 종상소동지는 못할일 ▲다시말하자면 쌀의 싸홈이 아니라 即돈의 싸홈 돈이라야 貫하고도 頑한物件인것을 可知 ▲今前場은 五十錢의 八番同價 五十一錢의 二番同價로 場을 마치고 말것다 이러한 膠着市勢도 稀貴한現象

各地正米

京城少落 定期의 凡調로 五錢低唱이오 買氣萎縮하야 丸仁三等二十八圓八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三十一圓五十錢

仁川弱含 前途에 實需人氣로一兩賣物가 잇는 實物이 업고 現期同條의 場面을 呈하야다 丸仁三等二十八圓八十錢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十五錢

釜山閑調 市場賣物이 三千叺이 僅히 當用向의 補充買가散 …

大邱軟調 依然 賣方共히 積極的으로 推移되어 角?三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群山少弱 高價期待로 產地의 賣物가 업고 寶物薄의 市場이 나마不勢로 氣配五錢低唱인 ?三等二十九圓〇五錢四等二十八圓九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木浦不動 適價에는 移出側의 買氣가 散見되나 市況이 沈滯되엇다 丸木三等二十九圓〇五錢四等二十八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丁

京城府光熙町 康益夏 電話 光 四八

住宅地分讓 光熙門外新堂里電車終點五丁 面積二萬六千三百坪 代金坪當金五圓以上二十五圓 鍾路六丁目十二番地 坪當二千七百坪 代金坪當二十七圓以上五十圓 賣渡方法全部又ハ分割 賣渡方法百坪以上分割

土 金 石 金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鐵搾粕沖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illegible]